

성현
임한주 선생과
덕명의숙



청양문화원
CHEONGYANG CULTURAL CENTER

성현

임한주 선생과

덕명의숙



청양문화원

CHEONGYANG CULTURAL CENTER



[차 례]

제1장 격동과 함께 한 임한주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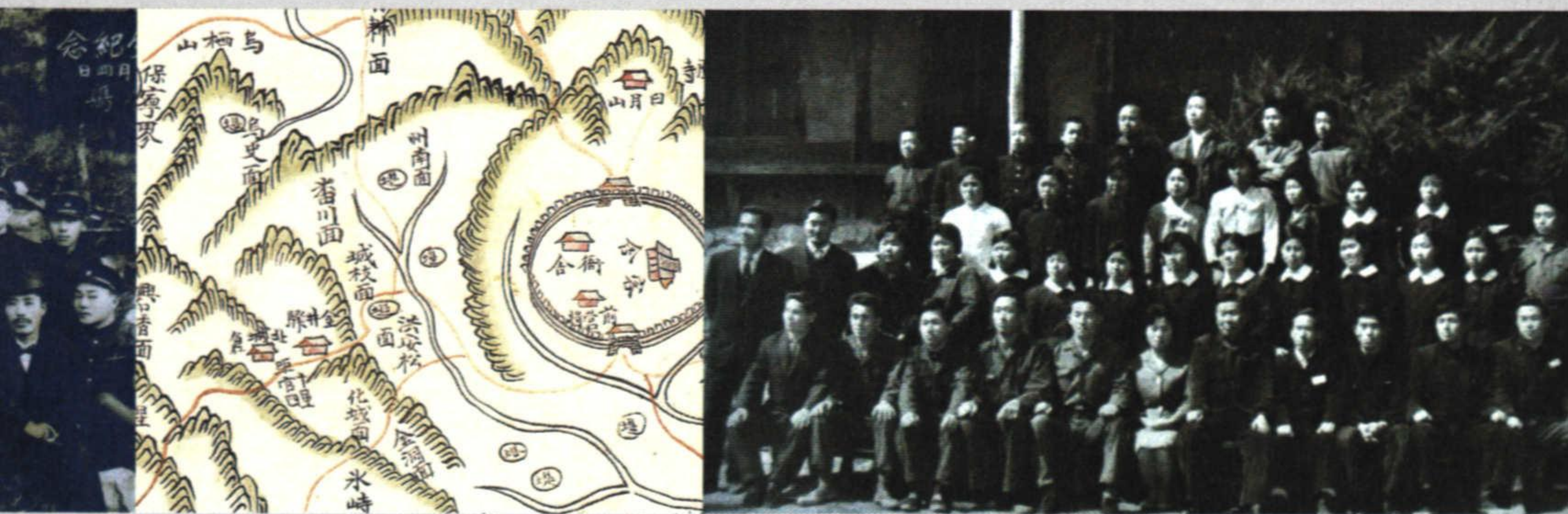
열강들의 주권침탈과 불안한 정국 | 07 임한주의 고향, 물안이 | 09
평택임씨 참의공파의 충절전통 | 15

제2장 제1차 홍주의병과 청년 임한주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 19 차라리 머리 없는 귀신이 될망정 | 19
변절로 실패한 의병 | 21 고종의 특령으로 석방되다 | 23

제3장 제2차 홍주의병과 홍양기사

거센 열강의 침투와 을사늑약 | 27 홍주지식인들의 분노와 봉기 | 28
제2차 홍주의병의 진격과정 | 29 홍산 지치(支峙)에서의 재기 | 31
한밤의 포성과 홍주성 공방전 | 33 참상을 기록한 홍양기사 | 39



제4장 만세시위와 파리장서의 작성

파리장서의 초안을 작성한 임한주 | 45 전문을 암기하여 운송 된
파리장서 | 47 유교부식회의 활동 |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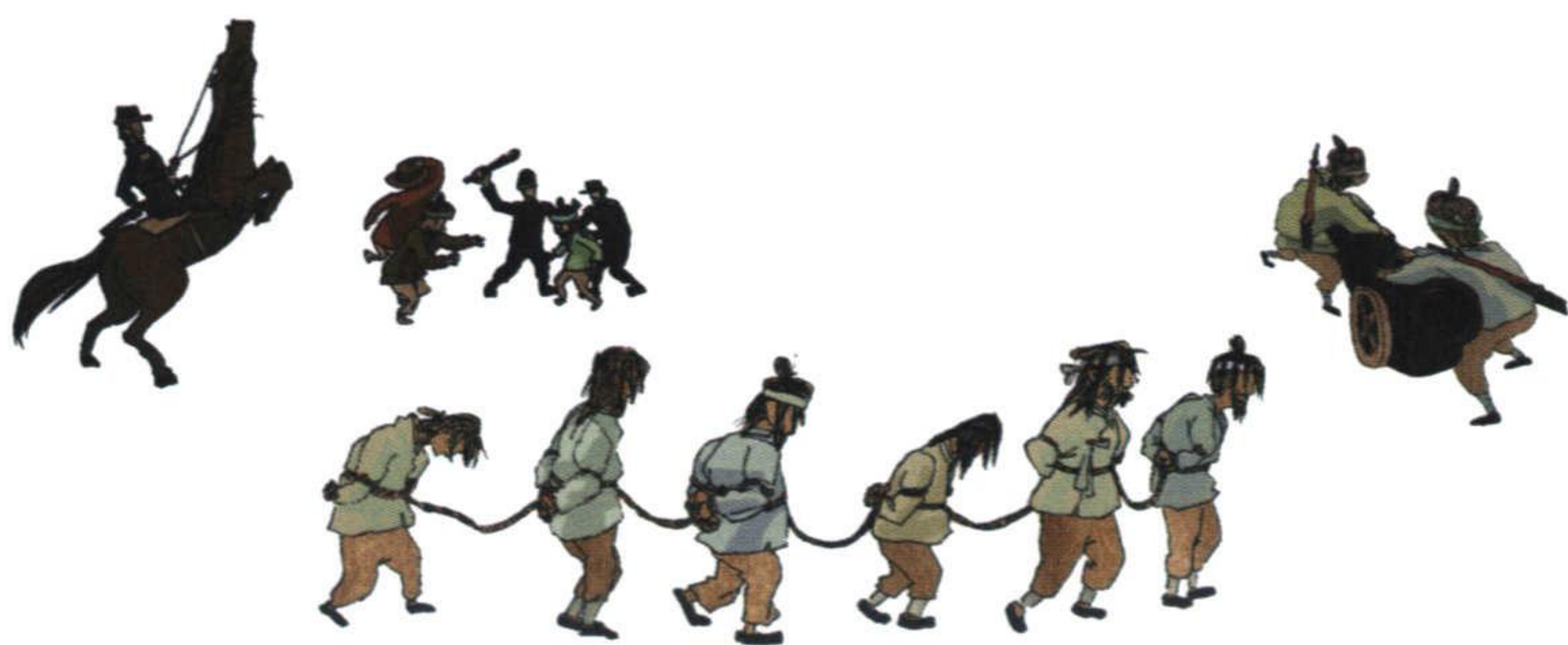
제5장 물안이의 애국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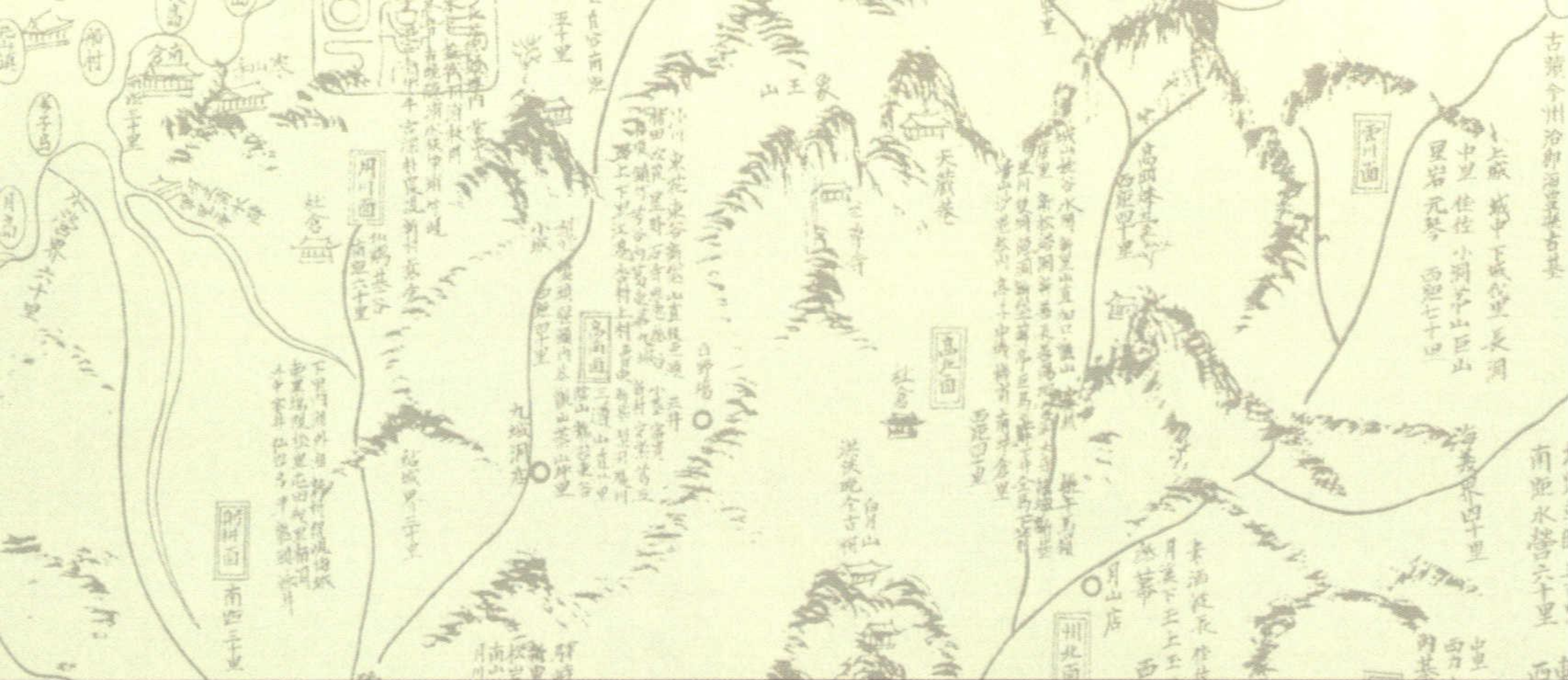
애국애족의 마을 | 55 화성만세운동 | 57 홍성철의사, 임승주 | 59
파리장서의 운반책, 임경호 | 59 상해임시정부의 조달책, 임금호 | 62

제6장 산천재의 교육정신과 덕명의숙

문중의 재실을 서당으로 | 69 독립운동의 거점이 된 덕명의숙 | 73
물안이 새마을학원 | 75 농촌계몽에 앞장 선 고등학생 임동걸 | 77
산천재로 이전 | 79 가난도 극복한 학업의지 | 81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의 의료봉사 | 81 복사꽃 피는 마을 |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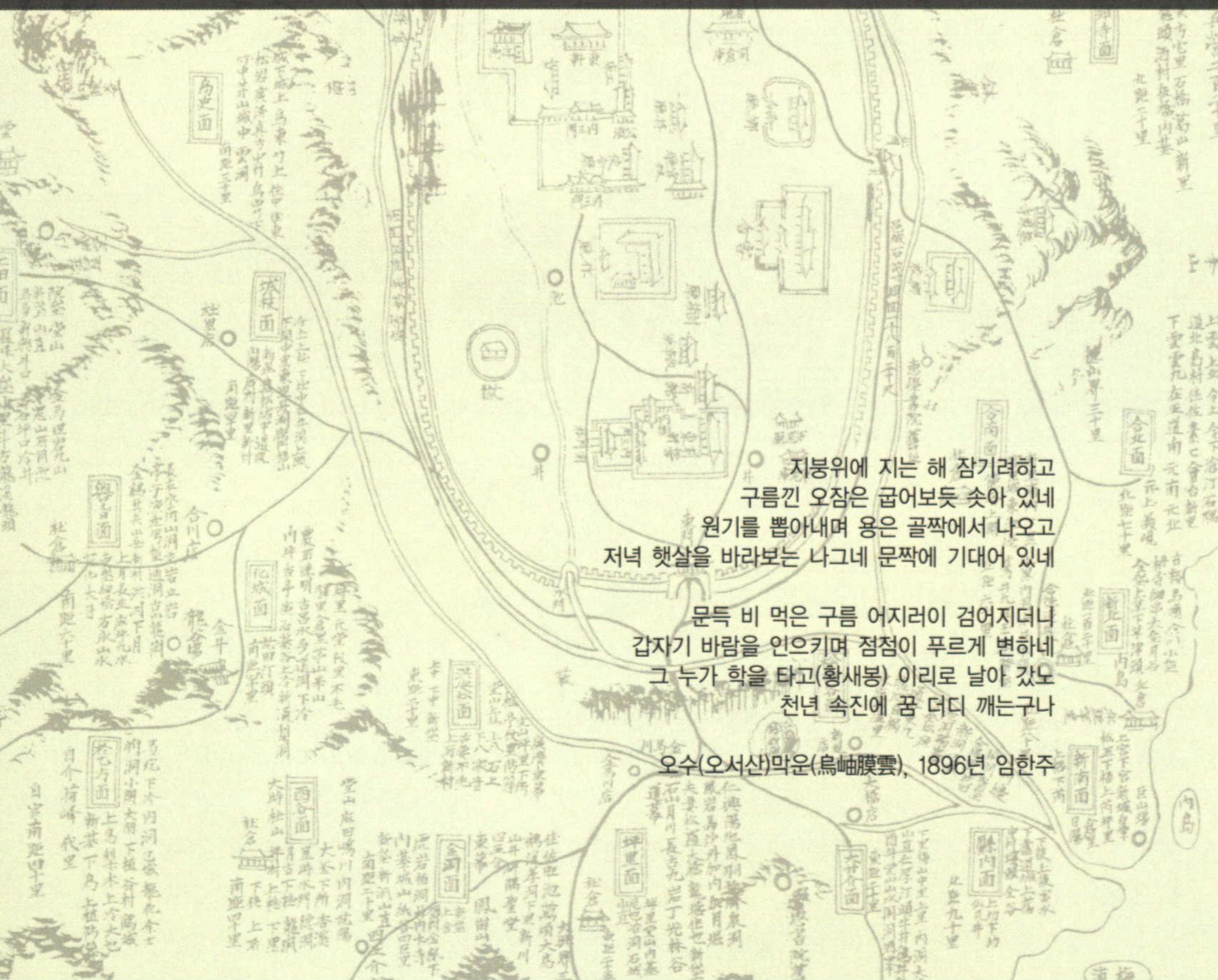
[부록] 임한주 선생 연보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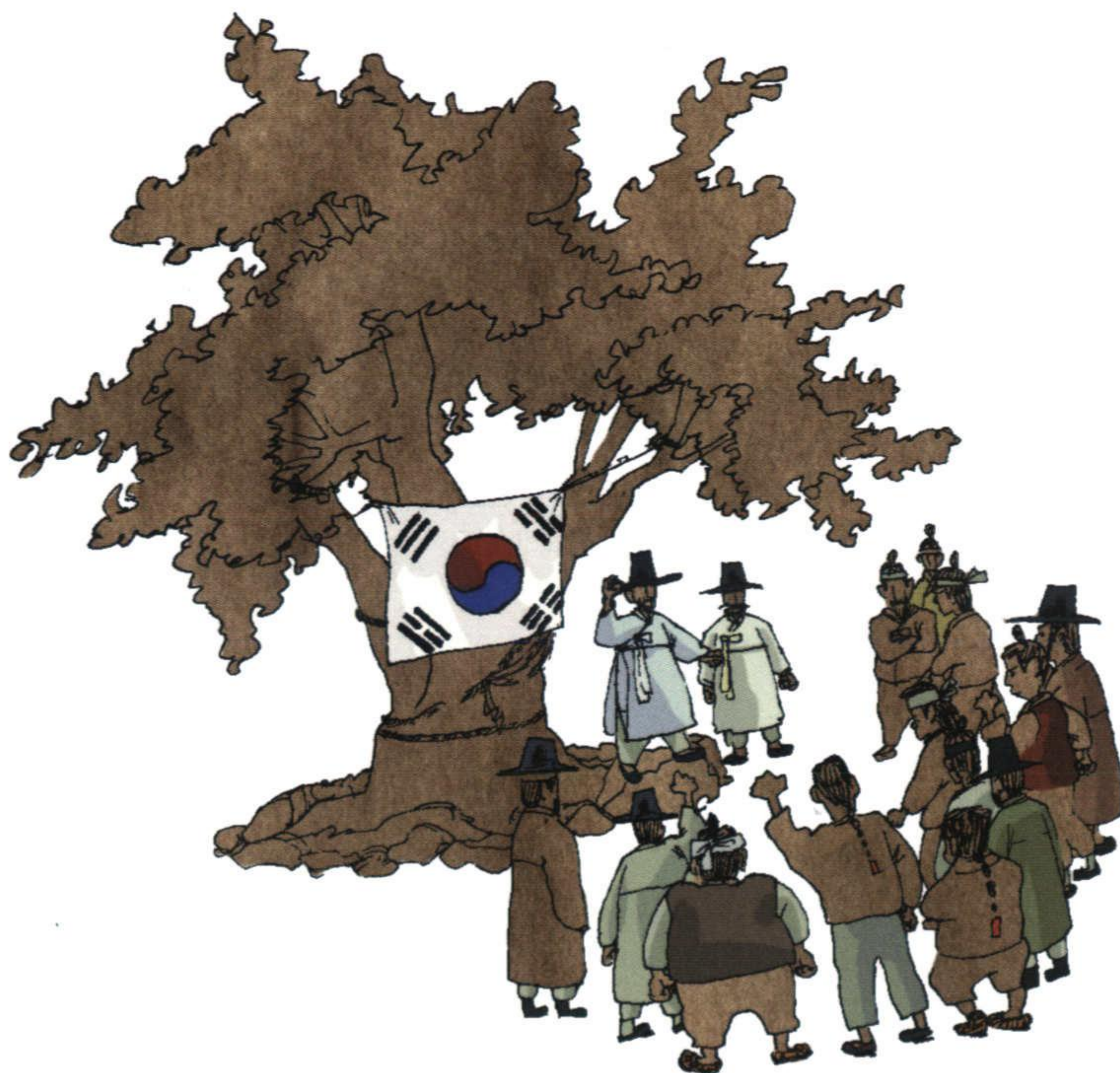
[격동과 함께 한 임한주의 성장]



지붕위에 지는 해 잠기려하고
구름긴 오잠은 굽어보듯 솟아 있네
원기를 뿜아내며 용은 골짜기에서 나오고
저녁 햇살을 바라보는 나그네 문짝에 기대어 있네

문득 비 먹은 구름 어지러이 검어지더니
갑자기 바람을 일으키며 점점이 푸르게 변하네
그 누가 학을 타고(황새봉) 이리로 날아 갔도
천년 속진에 꿈 더디 깨는구나

오수(오서산)막운(烏岫膜雲), 1896년 임한주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물안이 마을은
마을사람들이 힘을 합쳐 구국활동을 벌인 애국지사 마을이다.
이 작은 마을 주변에 독립유공 포상자가 무려 13명에 이른다.
그러나 당시 같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열강들의 주권침탈과 불안한 정국

어쩌면 고단한 삶이었다. 임한주(林翰周, 1871-1954)의 일생은 우리나라 근현대, 그 격동기와 함께 했다. 그가 태어난 1871년(고종 8)에는 미국 로저스(Rodgers, J.) 제독이 1,200명의 군사와 함께 콜로라도호를 이끌고 강화도를 공격한 신미양요(辛未洋擾)가 일어났다. 당시 강압적인 개방요구에 대항했던 많은 조선 사람들이 전투 중 세상을 떠났다.

일본의 위협은 더 불안한 일이었다. 중무장 한 군함 운요호가 조선을 위협하여 결국 강화도조약이 이루어졌을 때, 임한주의 나이는 불과 6살이었다. 이후 조선은 역사상 가장 불안한 시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신식군대와 산업문화를 앞세운 서양과 일본의 침투에 많은 조선 지식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후부터는 서둘러 개방을 받아들이자는 개화사상과,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강대국들을 배척하는 위정척사사상이 동시에 격론을 벌였다.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우고 ‘서양과 교류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고 경계한 것도 바로 이 무렵의 일이다.

임한주의 어린 시절은 이처럼 온 나라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시기였다. 그가 14살이 되던 1884년에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일본과 손을 잡은 개화파가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청나라와 마저도 대립하게 되었다. 갑신정변은 불과 3일 만에 실패로 끝나 조선과 청나라, 일본의 삼국 관계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들의 각축은 마침내 청·일 전쟁

으로 다시 폭발하였다.

1894년, 청년 임한주의 나이 24세, 이제 정국의 불안은 한계를 넘어서 농민들마저 들고 일어났다. 곤봉과 죽창으로 무장한 동학농민군들은 서양열강과 일본을 몰아내고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봉기했다. 그러나 이들의 거센 불길에 놀란 정부가 청나라에 파병요청을 하였고, 3,0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으로 들어오자 이를 명분으로 일본군이 결국 궁궐을 점령했다.

홍성과 인접한 아산만에서 격렬히 부딪친 청일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 조선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종을 포로로 만들고 일본의 개혁안을 무력으로 통과시켜 갑오개혁을 실시하였다.



임한주의 고향, 청양 물안이

오서산(烏棲山) 동북쪽에 위치한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물안이마을 앞으로는 차령산맥에서부터 내려온 무한천이 흐른다. 오랜 옛날부터 마을사람들의 젖줄이 된 이 물길은 북쪽으로 흘러 예당저수지를 거쳐 삼교천으로 유유히 빠져 나간다.

물안이는 물이 많고 좋다는 뜻인데, 수정리에서도 으뜸 되는 마을로 ‘수다리’, ‘수내리’, ‘수곡리’ 등으로도 불렸다. 마을 주변은 낮은 산지와 언덕이 대부분이라 옛 선사시대 사람들도 무척 이 곳을 좋아했던 것 같다. 그것은 수정리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거북바위라 부르는 마을입구의 바위가 청동기시대 고인돌로 확인되었으며, 물안이 옆 마을 도토막재에서도 청동기유물들이 발견된 적이 있다.

심지어 물안이를 중심으로 수정리와 화암리에는 백제시대 고분터가 조사된 곳만 7군데나 있다. 또 물안이 골짜기에는 시대는 잘 모르지만 오래 된 절터와 기와를 굽던 곳도 확인되었다. 고로 선사시대를 거쳐 옛 백제 사람들도 이 물안이 골짜기를 편안한 삶터로 차지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물안이에서 동쪽으로 2k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용당리 용머리마을은 고려시대부터 화성부곡(化城部曲)이 있던 곳이다. 부곡의 신당(神堂)이 있었다는 터도 구전으로 전해오는데, 때문에 무한천 주변의 이 구릉지 일대가 고려시대에는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행정구역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오늘날 화성면의 이름도 바로 이 화성부곡에서 유래한 것이다.







수정리 거북바위 사진

조선시대 때는 화성부곡이 있던 자리 부근에 용곡역(龍谷驛)이 들어섰다. 용곡역은 원래 금정역(金井驛,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에 딸린 역이었으나, 1614년(광해군 6) 부터는 이곳이 중심역이 되었다. 마을에는 당시 역을 관리하던 찰방(察訪)이 살았다는 집터도 전해진다. 또한 1795년(정조 19)에는 저 유명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금정역의 찰방으로 부임하여, 이후 6개월을 머무르면서 공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물안이와 바로 접해있으며, 평택임씨 임식의 신도비와 재실이 자리한 화암리 꽃창이 입구에는 조선 말기까지 나라에서 세금을 거

두어 들이는 창고(倉庫)가 있었다. 때문에 꽃뒹굴에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꽃창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지금은 폐교 된 화암초등학교 부근이 바로 그 지점이다.

이처럼 물안이마을 일대는 오래 전부터 옛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전해 내려오는 유서 깊은 곳이다. 무한천과 금정도의 옛길은 새로운 사람들과 마을 안팎의 소식, 그리고 문화를 전해주는 좋은 통로였다. 또 이 무한천에서 갈라져 나온 물길들과, 이 물길 주변으로 잘 형성된 문전옥답(門前沃畝)들은 이곳에 자리 잡은 사람들의 좋은 일터가 되어 주었다. 임한주의 고향은 바로 이처럼 안온한 물안이 마을이다.



물안이 임한주 선생의 옛 집터



조선후기 『해동지도』의 홍주목(洪州牧)
금정역 주변 물안이마을과 꽃창이의 창고(북성창) 등이 자세하다.

평택임씨 참의공파의 충절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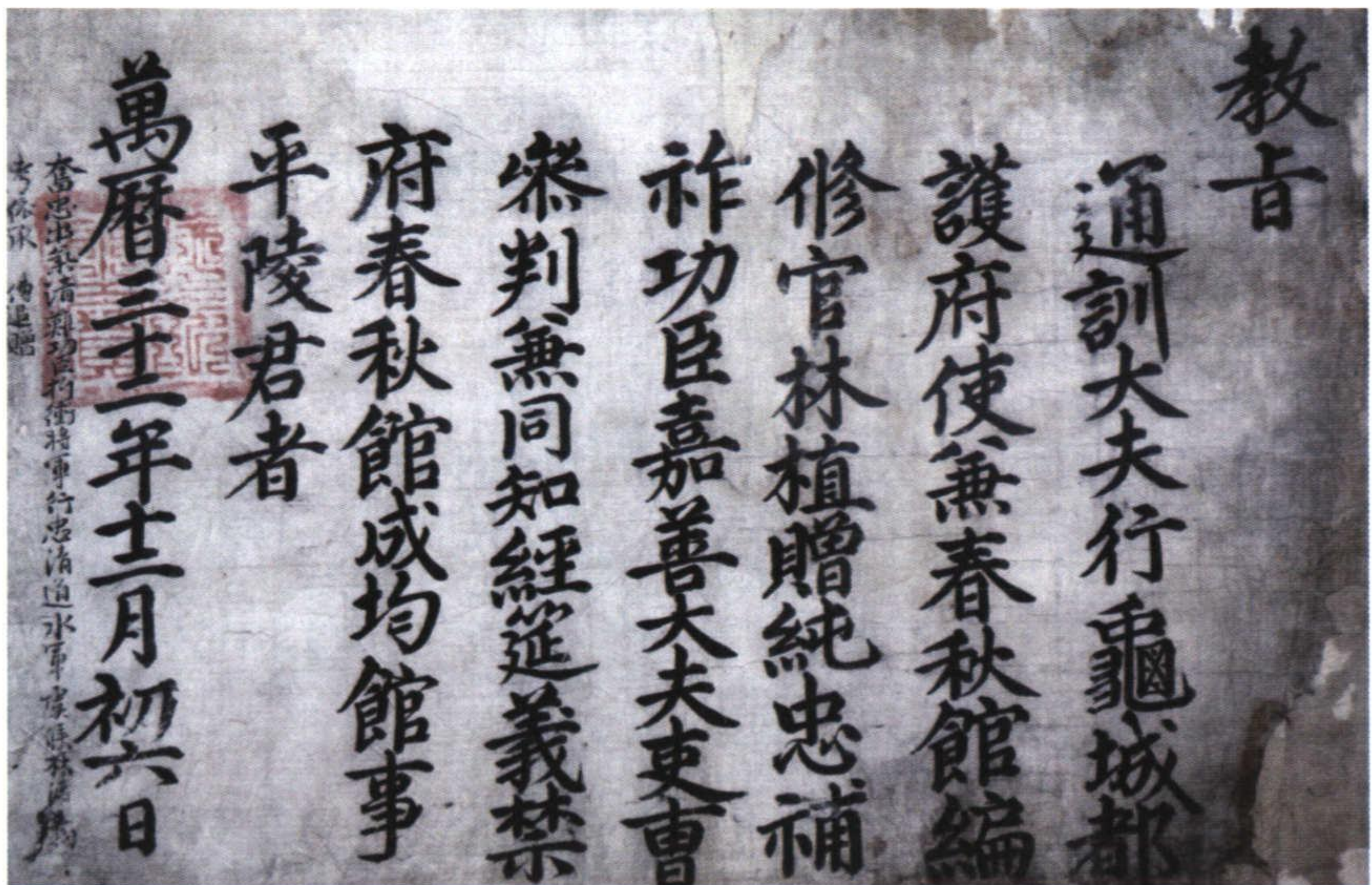
1871년 2월 22일, 임한주(林翰周)는 평택임씨 임노직(林魯直)과 김해김씨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임한주의 자는 공우(公羽), 호는 성헌(星軒)이며 때로 면주(冕周)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 그의 형은 훗날 함께 홍주의병에 참여하여 홍주칠의사(洪州七義士)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임승주(林承周)이다. 임한주도 이곳에서 부인 달성서씨를 맞아 두 딸을 두었고, 형 임승주의 둘째아들 임성호(林誠鎬)를 양자로 맞아들였다.

평택임씨가 홍성과 인연을 맺은 것은 조선중기 임식(林植, 1539-1589)이 청양 화성에 은거하면서 부터로 전해진다. 물론 임식의 아버지 임정수(林貞秀, 1514-1547)가 청양현감을 지냈었고, 청양에 그의 선정비(善政碑)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더 이른 시기부터 인연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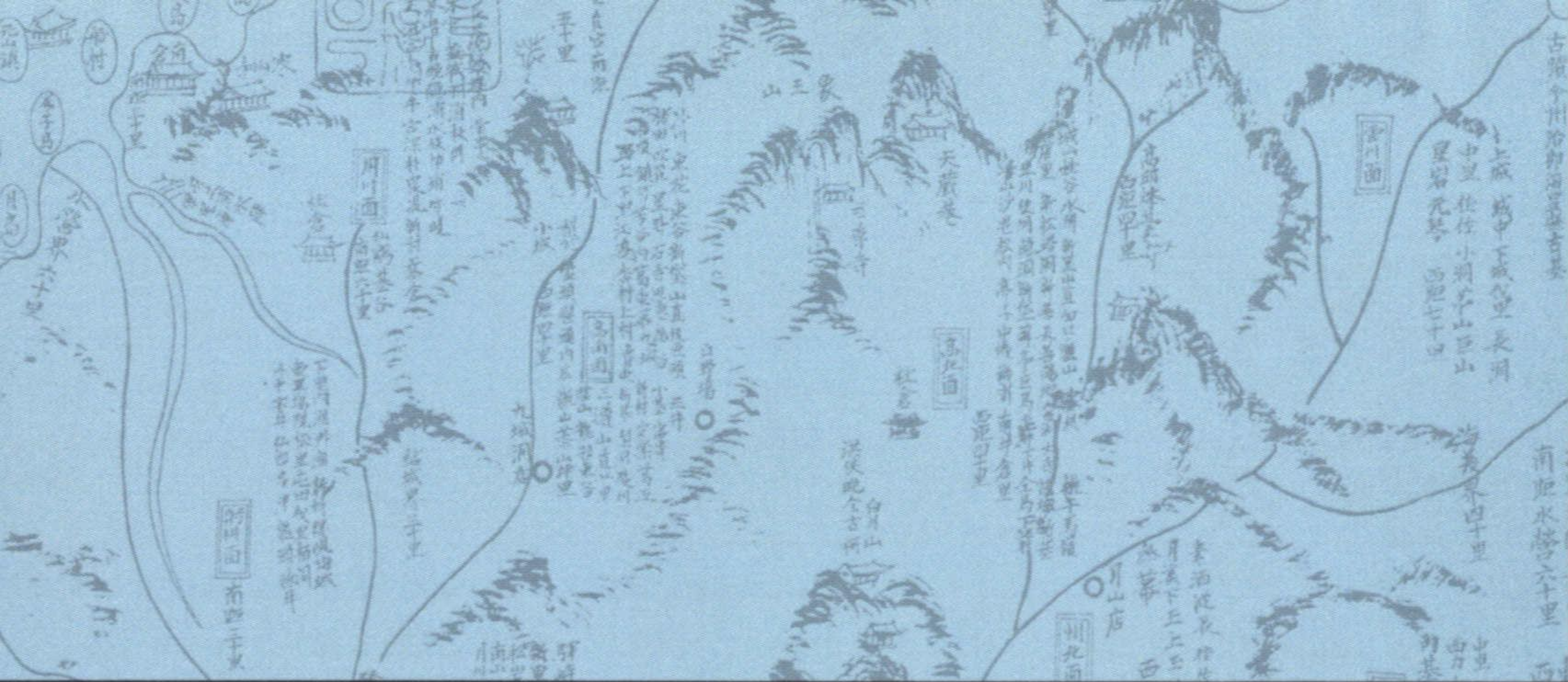
한편 임식은 1564년(명종 19) 사마시에 을곡 이이와 함께 급제하고, 1572년(선조 5)에 춘당시(春塘試)에 급제한 뒤 이조좌랑과 홍문관교리, 형조정랑 등 다양한 벼슬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임식은 50세가 되던 1588년(선조 21) 4월, 홍성 결성에 낙향하여 부해정(浮海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유유자적하다 이듬해 생애를 마쳤다.

임식의 부인은 인근 해미현감을 지낸 해주최씨 최제운(崔霽雲)의 무남독녀로, 아들이 없는 최제운이 세상을 떠나자 이때부터 평택임씨 집안에서 외손봉사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400여년간 이어 온 평택임씨 집안의 전통 중 하나이다. 임식은 이후 차남 임득의가 이몽학의 난에 공을 세워 영의정에 증직되고 평릉군에 봉해졌다. 평택

임씨는 이처럼 오랜 충절전통을 지니고 있는데, 이외에도 임식의 8 아들과 9손자가 이몽학의 난에 참여하여 공훈록에 올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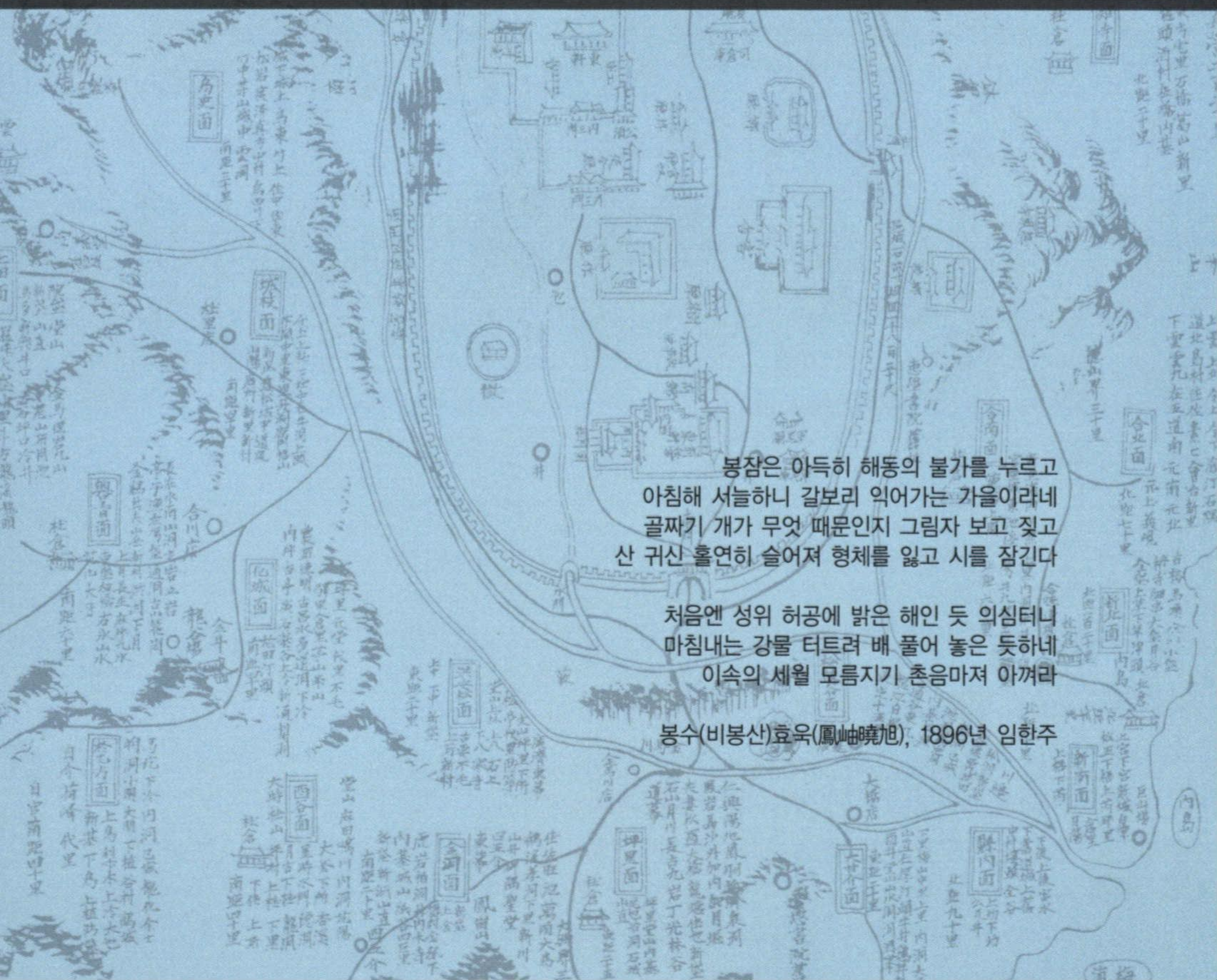


임식을 평릉군에 추증하는 교지(1604년 12월 6일 발급)
 임식의 아들 임득의(林得義, 1558-1612)는
 임진왜란 중 홍성에서 일어난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청난공신(淸難功臣) 3등에 녹훈되고 평성군(平城君)에 봉해졌다



제 2 장

[제1차 홍주의병과 청년 임한주]



봉잠은 아득히 해동의 불가를 누르고
아침해 서늘하니 갈보리 익어가는 가을이라네
골짜기 개가 무엇 때문인지 그림자 보고 짓고
산 귀신 홀연히 슬어져 형체를 잃고 시를 잠긴다

처음엔 성위 허공에 밝은 해인 듯 의심터니
마침내는 강물 터트려 배 풀어 놓은 듯하네
이속의 세월 모름지기 촌음마저 아껴라

봉수(비봉산)효욱(鳳岫曉旭), 1896년 임한주



1895년(고종 32) 일본의 강요로 단발령이 내려지고,
 고종이 먼저 서양식으로 머리를 깎았다.
 머리카락도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 하여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 분개했지만
 관리들은 가위를 들고 다니며 강제로 머리를 잘랐다.

명성황후의 시해와 단발령

홍주의병은 1895년과 1906년 두 차례에 걸쳐 홍성을 중심으로 내포 일대에서 일어난 항일의병활동이다. 1896년 제1차 홍주의병은 단발령의 공포 직후 정부의 개화정책과 일제의 강압적 침략행위에 저항하며 봉기하였다.

1894년 협박과 강요 속에 추진된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일본의 내정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을 견제할 대안으로 러시아를 선택하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등 반일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일본을 더욱 자극하여 1895년 10월 8일, 경복궁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국모의 시해로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무렵 이제는 단발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분개한 국민들은 일본과 친일 관료들을 직접 응징하기 위한 무력투쟁을 일으켰다. 특히 홍주의병은 당시 전국적인 의병활동 중 가장 먼저 봉기하였고 특히, 수정리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차라리 머리 없는 귀신이 될망정

1895년 11월 28일, 명성황후의 시해와 단발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홍주의 지식인들이 화성(化城)에서 향회(鄉會)를 열었다. 그리고 무력투쟁과 군사 활동을 결의한 이들은 다음날 홍주성(洪州城)

에 입성하였다. 홍주 유림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은 창의대장(倡義大將)에 추대되어 홍주읍성 조양문 위에 ‘존화복수(尊華復讐)’라 쓰인 기를 세웠다.

임한주는 26세 때 그가 직접 보고 겪은 의병의 현장을 훗날 『홍양기사(洪陽紀事)』에 정리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당시 홍주의병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김복한과 이설(李僖) 등을 필두로 대체로 40대 중후반의 어른들이었으며, 청년 임한주는 이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



우선 『홍양기사』의 첫머리에는 당시 혼란했던 국제정세 속 강제로 머리까지 깎이는 조선의 처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倡義)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복한과 제1차 봉기를 결심하게 된 배경, 또 당시 적극적으로 창의를 호소하던 이설이 홍주목사 이승우(李勝宇)를 찾아가 밤을 새워 울부짖으며 그를 설득하던 일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변절로 실패한 의병

마침내 홍주목사 이승우로부터 수락을 받은 홍주의병은 이제 본격적으로 의병을 모집하였는데, 임한주는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병을 따르는 것을 보고 감탄하였음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초기부터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승우의 안일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스스로를 ‘홍주목사 겸 창의대장’이라 칭하며 호기롭던 이승우는 창의를 시작 된 직후 뜻을 바꾸고 만 것이다.

이승우의 변절은 이들에게 크나 큰 상처가 되었다. 홍주성을 점령하기 전 먼저 이승우에게 동참을 간절히 호소하고, 수락까지 받아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복한을 비롯한 주요인물들이 모두 끌려가고, 홍주의병은 한차례의 전투도 없이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성 밖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안병찬(安炳瓚)과 임승주(林承周)가 급하게 관문을 부수고 성안으로 들어갔으나,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옥에 갇힌 의병들은 이승우의 변절에 침을 뱉었다.
 특히 안병찬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졌는데,
 이를 구한 것은 바로 임한주의 형 임승주였다.
 이는 모두 훗날을 다시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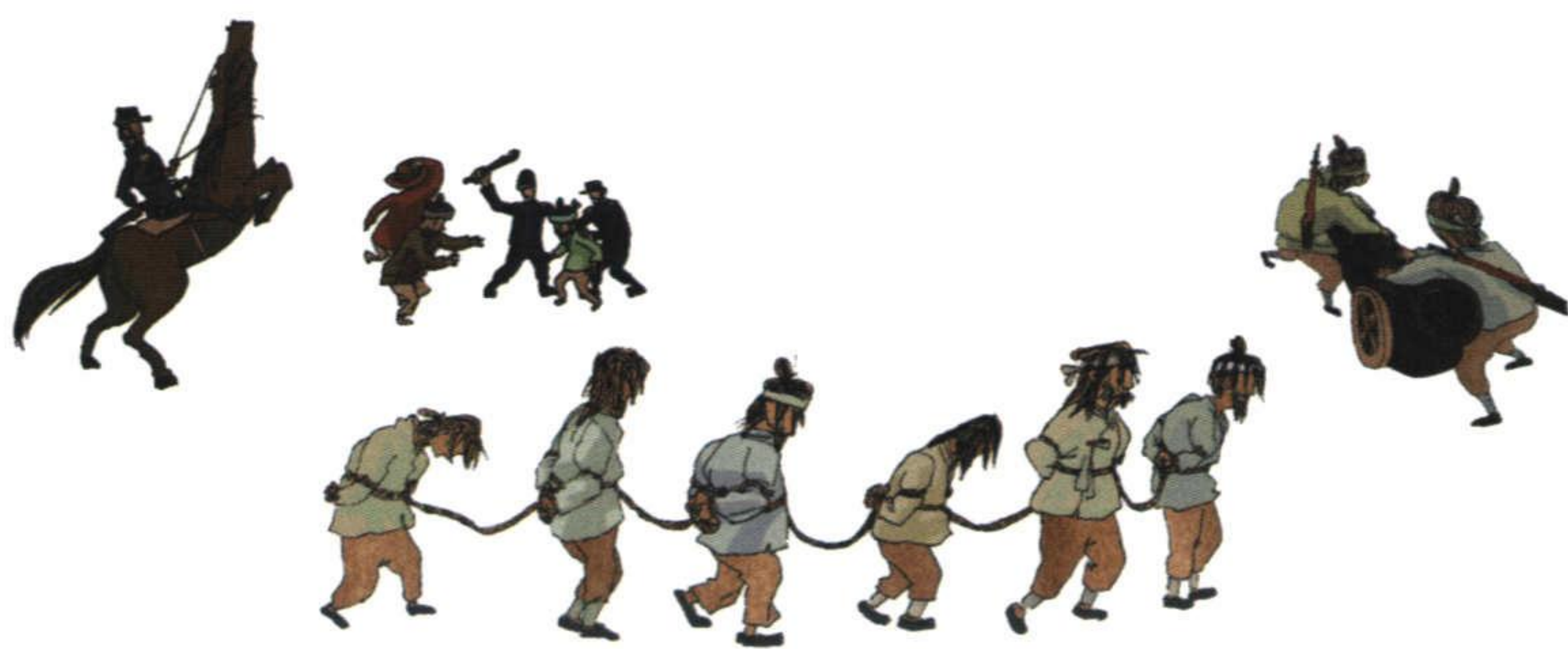
의병의 실패 후 한 달이 지난 12월 30일, 법부의 명령으로 의병들은 서울로 압송하게 되었다. 죄수는 23명이었는데, 모두 결박된 채 혹은 가마를 타고, 또는 말을 타거나 짚신발로 걸어서 길을 떠나니 이 광경을 본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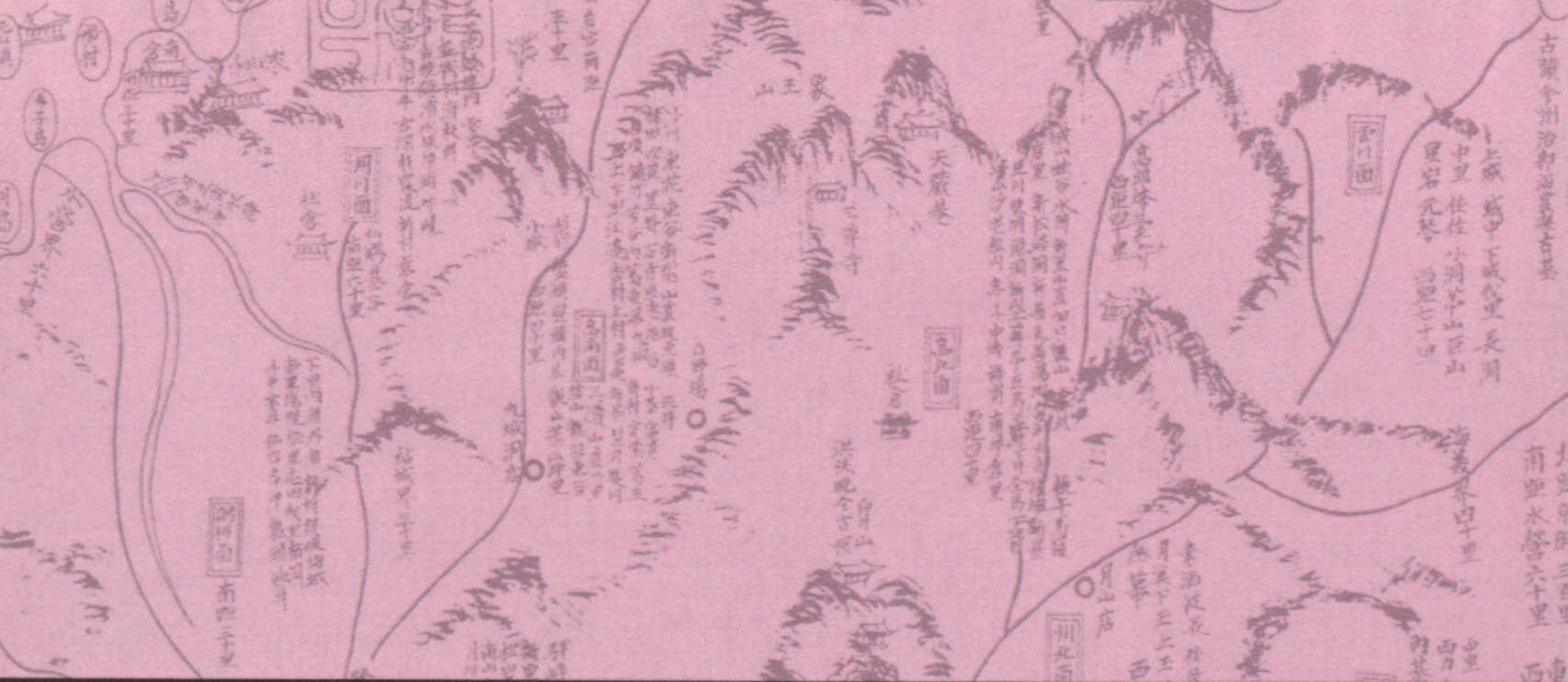
그런데 일행이 홍주를 얼마 떠나지 않아 예산 신례원(新禮院)에 당도했을 때였다. 죄인을 호송하던 이승우는 마침 서울에서 전달된 소식을 듣고 의병들을 다시 홍주감옥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이들이 홍주를 떠나기 바로 이틀 전 이범진이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김홍집과 정병하 등을 베어 죽임으로써 시국이 돌변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승우는 굳이 서둘러 의병들을 서울로 압송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고종의 특령으로 석방되다.

서울로 압송되었던 의병 일행이 다시 홍주 감옥으로 돌아오자 이설과 김복한, 안병찬 등 6명은 특별히 보석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 석방시켰다. 사방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앞을 다투어 찾아와 서로를 위로하며 술과 고기로 대접하였다. 또 사람들은 이들을 6명의 의로운 선비들이라 크게 써서 홍주성에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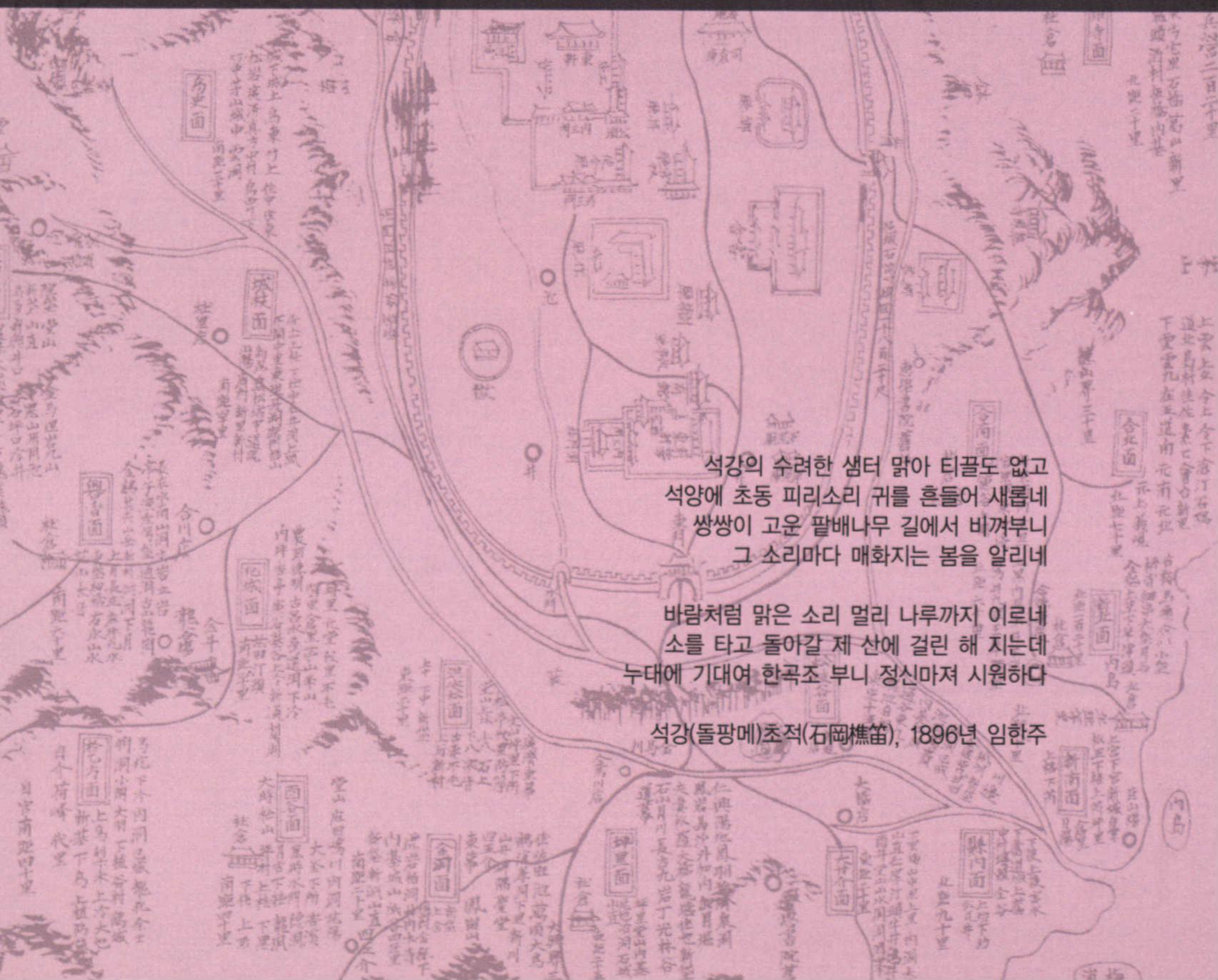
그러나 결국 4개월 후 의병들은 경성고등재판소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김복한 귀양 10년, 안병찬 등은 3년, 이설은 곤장 80대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판결이 내려진 당일 밤 자정, 고종이 직접 특령으로 석방의 명령을 내렸다.





제 3 장

[제2차 홍주의병과 홍양기사]



석강의 수려한 샘터 맑아 티끌도 없고
석양에 초동 피리소리 귀를 흔들어 새롭네
쌍쌍이 고운 팔배나무 길에서 비껴부니
그 소리마다 매화지는 봄을 알리네

바람처럼 맑은 소리 멀리 나루까지 이르네
소를 타고 돌아갈 제 산에 걸린 해 지는데
누대에 기대여 한곡조 부니 정신마저 시원하다

석강(돌팡메)초적(石岡樵笛), 1896년 임한주

猥筆

陽動陰靜者皮面果似自行自止者深矣其實則直是天命使然也天命然也故不得不然此謂所以然非天命之外別有所以然也今日且觀自爾自爾難不接此類之謂而已舍此已不他由之意又申言之曰非有使之者說自爾時猶猶虛到非有使之語意確真若陰陽無所關由而自行自止者此兩句得見己有晚陰陽之謂道一日無所陰陽則天命無施矣不誠無物天命一旦氣息則無陰陽矣故亦不待何物等以動靜也非有使之石可命脫息也

自陽陰陽因為實所未聞天命為萬事本領今有自行自止才關自天命者則天命之外又一本領也兩箇本領各自樞紐則造化必無此事又理弱氣強吾懼天氣棄理位也非有此也自自爾自非使時其不得不然之故已被氣分占取不得不然之故即所以然也天地萬物說到所以然即是窮源更無地猶大樞之曰所以然者理則架出所以以上有何所以然也豈非有虛名而無實事者歟論以萬見自爾二字與所以然三字恰是對敵自爾為主所以然不得不退縮今欲兩拜兩拜用其貌樣頗似魏廷楊佺期在丞相府安能死畢竟乖張乎此又事勢之必不可行者也動者靜者氣也動之者理也動之靜之非使之然而何

士論則題目鄭重衆人有餘在我則床書寂寂自明無障自鹿床凌
踏自滔天波浪曰非動於禍福而爲自脫之計也竊觀其分意措辭以
今日之士論僣然歸之於自處則以待天定言者掩不得失噫其東
諸先正果皆異端之學而奇在兩人獨可爲吾儒之宗耶其然乎豈其
然乎此所謂人間萬事真無所不有者也且念藥山說未免自是已
見至於東翁則獨守固以自尊之今急於尊奇不覺句語其師呼亦
可哀也已此在春秋之義難免先治之律有不可以時負望可惜廢萬
古斥邪之大防也伏願僉君子齊力共討以反正經扶斯久殘魁之服

癸卯四月初七日發文前承旨李便前承旨金福漢前承旨
李貞植前都事李健奎趙一元朴寧趙龜元沉宜惠柳浩
根中稷善安燾晴李根周林承周李應廷林晃周李秉報

홍주의병통문(洪州義兵通文, 1903년 4월 7일 작성)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저항하는 홍주의병의 격문이다.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움을 타파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이므로 의병을 다시 일으킨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최익현과 기우만의 서찰도 담고 있다. 이설과 김복한을 비롯하여 이근주, 안병찬, 임한주 등이 서명하였다.

거센 열강의 침투와 을사늑약

일제의 국모시해 만행과 강압적인 개혁은 국민들의 큰 반발을 사,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반일정서가 팽배해졌다. 이제 각종 제도의 수정은 물론 고종의 위상을 황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1897년 8월 16일 부국강병을 큰 목표로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바꾼 고종은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점차 근대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열강의 정치적 간섭은 이제 경제적 간섭으로 확대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권을 얻은 것은 역시 일본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국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서울을 점령한 일본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존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점령을 규정한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했다. 러일전쟁도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는데 국제적인 승인도 받아두었다.

1905년,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군대를 거느리고 경운궁 중명당에 들어가 고종황제를 위협하며 보호조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황제와 수상 등이 끝끝내 서명에 반대하자, 일본 군인이 외무대신 박제순의 직인을 가져다 날인하는 을사늑약이 불법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제 외교권마저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사실상 주권을 잃은 것과 다름없었다.

그리고 이 불법적인 늑약과정으로 분노한 사람들이 모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홍주지식인들의 분노와 봉기

1906년, 홍주의 유생과 민중들도 을사늑약에 분노하며 다시 일어났다. 이때는 홍주읍성에서 일본의 정규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는데, 단일 전투로는 최대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된다. 홍주의병은 최종적으로 패배한 전투였음에도, 이후 전국적인 의병활동이 폭발할 수 있게 한 도화선이 되었다.

이설(李僎)은 일제의 황무지개척권 요구의 소식을 듣고,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곧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면서 기필코 이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당장 전 국민이 대궐 앞에 나가 항쟁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복한, 이설, 임한주 등 분개한 홍주의 지식인들이

돌린 1903년의 통문이 전하고 있다. 이설은 김복한에게 편지를 띄워 ‘신하 된 자 죽음만이 남을 뿐이나 죽음도 의리가 아니다’라며 함께 상소 올릴 것을 권하고 상경하였다.

또한 지난 10년 전 제1차 홍주의병의 의병장 김복한도 송병선, 민종식 등과 대책을 세우고자 모였다. 이들은 상소를 올려 박제순을 비롯한 을사늑약에 찬성한 다섯 명의 조선 대신들을 처벌할 것과, 의병을 모집하여 일본세력을 몰아내고 왕실을 회복할 것을 주청하였다. 그러나 이설과 김복한은 상소를 올린 지 이틀만에 경무청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었으며, 12월 그믐날에서야 겨우 석방되었다.

한편 1차 홍주의병을 주도했던 안병찬과 채광묵도 적극적인 의병을 결의 중이었다. 그들은 1906년 3월 1일, 정산 천장리에 전 참판 민종식(閔宗植)을 찾아가 함께 의병으로 일어날 것을 청하였다. 그리고 3월 15일, 민종식은 자신의 땅 10여 두락을 팔아 5만 냥을 군자금으로 내놓았다. 이로서 홍주의병은 다시 시작되었다.

제2차 홍주의병의 진격과정

민종식을 대장으로 안병찬, 이세영, 채광묵, 박창로 등은 격문을 짓고, 각 나라의 공사에게 보내는 글을 작성하여 의병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곧바로 예산의 광수(光水, 광시) 장터로 진군한 그들은 대장단(大將壇)을 세워 하늘에 제사를 올리면서 목숨을 건 의지를 더욱 단단히 하였다.



이들은 곧바로 홍주로 향했는데, 우선은 동문 밖 하고개에 진을 쳤다. 그리고는 홍주성 안에 살고 있는 일본인을 잡아오면 머리 하나에 1천 냥을 상금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공격을 명하였다. 그러나 관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다음날에는 이세영이 함께 하고자 찾아왔다. 1896년 1차 홍주의 병 이후 군대에 들어가, 계급이 부위(副尉)에 까지 오른 그의 합류는 큰 힘이 되었다. 의병은 다시 광시장터로 집결하여 병사들을 훈련시켜 공주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한편 선두부대가 묵방(먹고개, 청양군 비봉면 중목리)에 이르렀을 때, 공주의 관군과 경병 200여 명이 청양읍에서 휴식 중이라는 척후병의 보고가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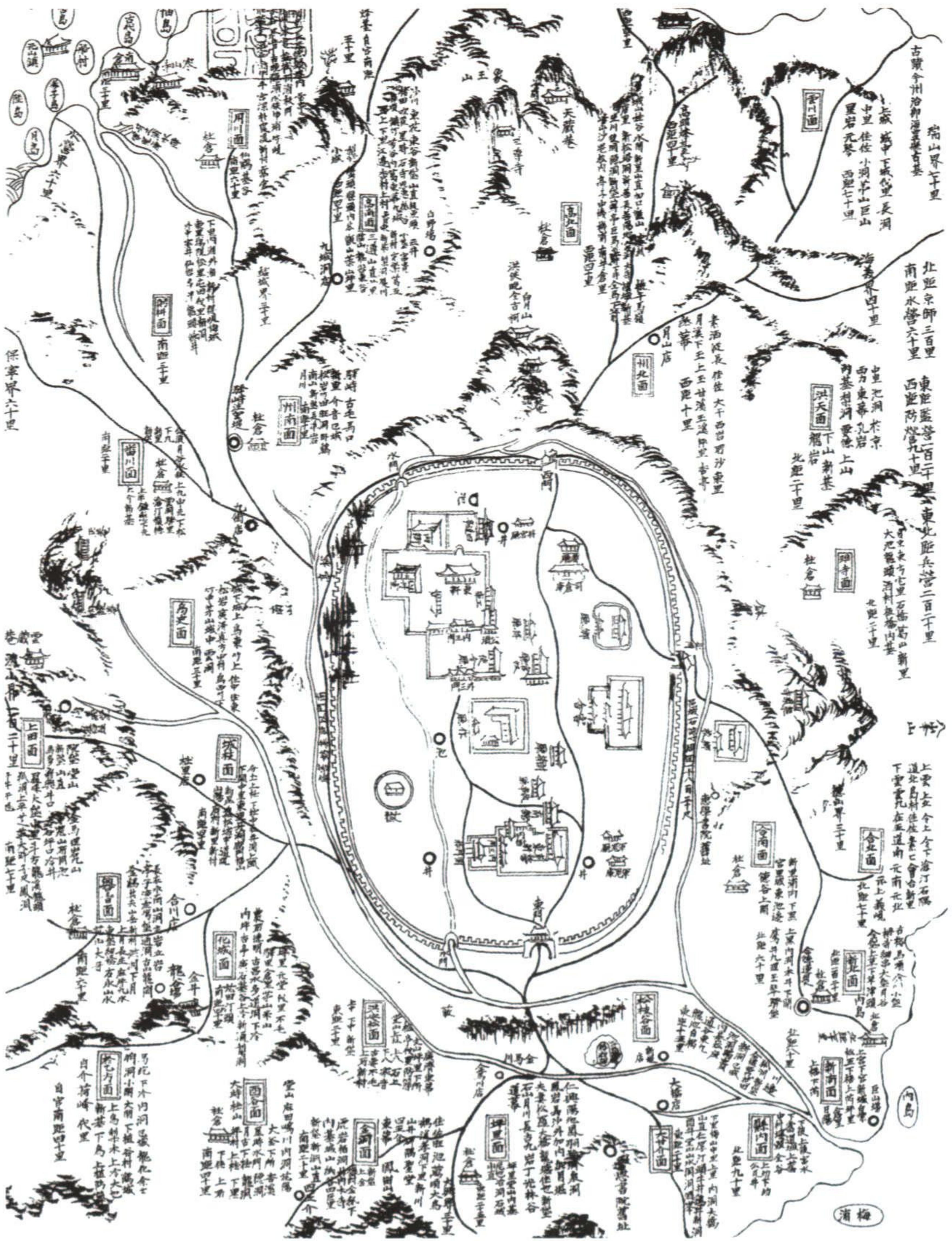
이를 들은 의병진은 진로를 다시 화성으로 옮겨 현재 화성면사무소가 자리한 합천(合川)에 진을 쳤다. 관군도 이 소식을 듣고 일본헌병대를 급파하여 홍주군 관군과 함께 먹고개에 도착한 후, 역시 합천 인근에 잠복하였다.

3월 17일 오전 5시, 의병부대는 일본헌병대와 관군의 합세공격을 받아 안병찬과 박창로를 비롯한 주요 인사 30여 명이 체포되고 말았다.

홍산 지치(支峙)에서의 재기

합천전투에서 패퇴한 의병들은 보령과 예산 등지로 흩어져 활동을 계속하였다. 당시 의병들은 홍주성 탈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드디어 5월 9일 처음 의병이 시작된 지 두 달여 만에 한번 흩어졌던 의병들은 홍산군 지치동(부여 내산면 지티리)의 한 주막에서 다시 봉기했다.

한편 의병장 민종식도 합천전투에서 간신히 탈출하여 각지를 숨어 다니다가, 이용규, 이세영 등과 다시 의병활동을 계획하였다. 민종식은 지치에서 다시 대장에 추대되어 부대를 정비하였는데, 이들은 홍산관아를 점령한 뒤 서천으로 행군하였다. 그리고 5월 13일, 비를 맞으며 도착한 서천읍에서는 군수 이종석을 감금하였고, 양총 70여 정을 획득하는 성과도 있었다.



홍주목지도(1872년 지방지도)

서천에서 비인을 거쳐 남포로 향한 의병대는 남포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다. 5일간이나 벌인 전투 끝에 의병대는 남포성 함락에 성공하였다. 이제 광천까지는 의병들이 진압하게 되었으며, 광천 부자 박익병이 공간을 열어 군량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홍주의병은 다시 결성으로 진군하여 홍주성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갔다. 5월 19일, 홍주의 삼신당리(三神堂里)에서 일본군과 싸워 이긴 의병부대는 구식 화포 2문을 선두에 내세워 홍주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의병은 남문에서 일본 헌병과 총격전을 하였으며, 오후에 서문으로 부대를 진격시키자 기습 공격에 놀란 일본헌병들이 동문을 통해 덕산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 때 신문천(申文千)과 천학순(千學順)이 하수구를 통해 성에 들어가 4대문을 열어 의병의 입성이 성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드디어 의병들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그 날은 홍주의 장날이기도 하였는데,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병의 홍주성 입성을 지켜보았다.

한밤의 포성과 홍주성 공방전

의병은 홍주성을 점령한 후 총기와 탄약, 그리고 우편국에 있는 금품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소를 잡아 다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사기를 높였다. 한편 홍주의병의 활동을 보고 받은 고종황제는 급히 선유사를 보내 이들이 스스로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 이는 의병의 의로움을 인정하나 초개와 같은 그들의 목숨은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반면에 일본군의 대응은 철저한 군사적 진압작전으로 이루어졌다.

일본군은 5월 20일부터 다시 홍주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의병은 굳건한 성벽을 이용하여 이들의 총격에 잘 대응하였다. 당시 일본경찰은 성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언덕에 올라 홍주성을 향해 구식대포와 소총을 무수히 난사했다.



5월 21일에는 일본경찰대에서 또 다시 성을 향해 총을 쏘며 공격했지만 의병들도 대포를 쏘아 물리쳤다. 이와 같은 소모전은 며칠간 계속되었다.

이처럼 몇 차례의 전투가 의병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 하자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결국 군대파견을 명령하였고, 5월 27일 보병 2개 중대(약 400명)가 홍주에 파병되었다. 또 기병 소대와 전주수비대도 합세하여 30일 홍주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의병 측에서도 방어태세가 정비되었는데, 앞서 29일에는 곽한일과 남규진의 부대 400여 명이 홍주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성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우세한 화력과 전투경험이 많은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5월 30일 밤, 동문으로부터 약 500m 지점의 숲속에 잠복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깊은 새벽 2시 30분, 드디어 일본측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3시경에는 기마병 폭발반이 동문을 폭파시켰다. 이를 신호로 일본 보병과 헌병대, 경찰대가 기관포를 쏘며 성문 안으로 진입하였다. 일부 군인들은 반대 쪽에서 의병부대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의병들은 성루에서 대포를 쏘며 대항하였으나 북문도 폭파되어 일본군이 들어왔다. 의병은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으나 결국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갔다. 일본군의 보고에 의하면 전투가 시작 된 지 불과 1시간도 안된 오전 4시 경 홍주성은 일본군에 의해 함락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서서히 동이 트자 일본군은 홍주성 전체를 점령했다. 당시 일본군 사상자는 경상자 2명 뿐이었으나 의병은 사망 82명, 체포된 포로

가 145명에 이르렀다는 일본측 기록이 전한다.

그러나 홍주성전투 직후 부임한 홍성군수 윤시영(尹始永)의 『홍양 일기』에는 홍주성이 일본군에 점령된 후, 일본군이 의병을 형틀에 매달고 또 총살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이미 전사자 83명을 매장하였는데 또 목 잘린 자 15인을 찾아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본측의 기록은 오류가 많았고, 대체로 당시 홍주성 전투의 희생자는 약 300여 명 정도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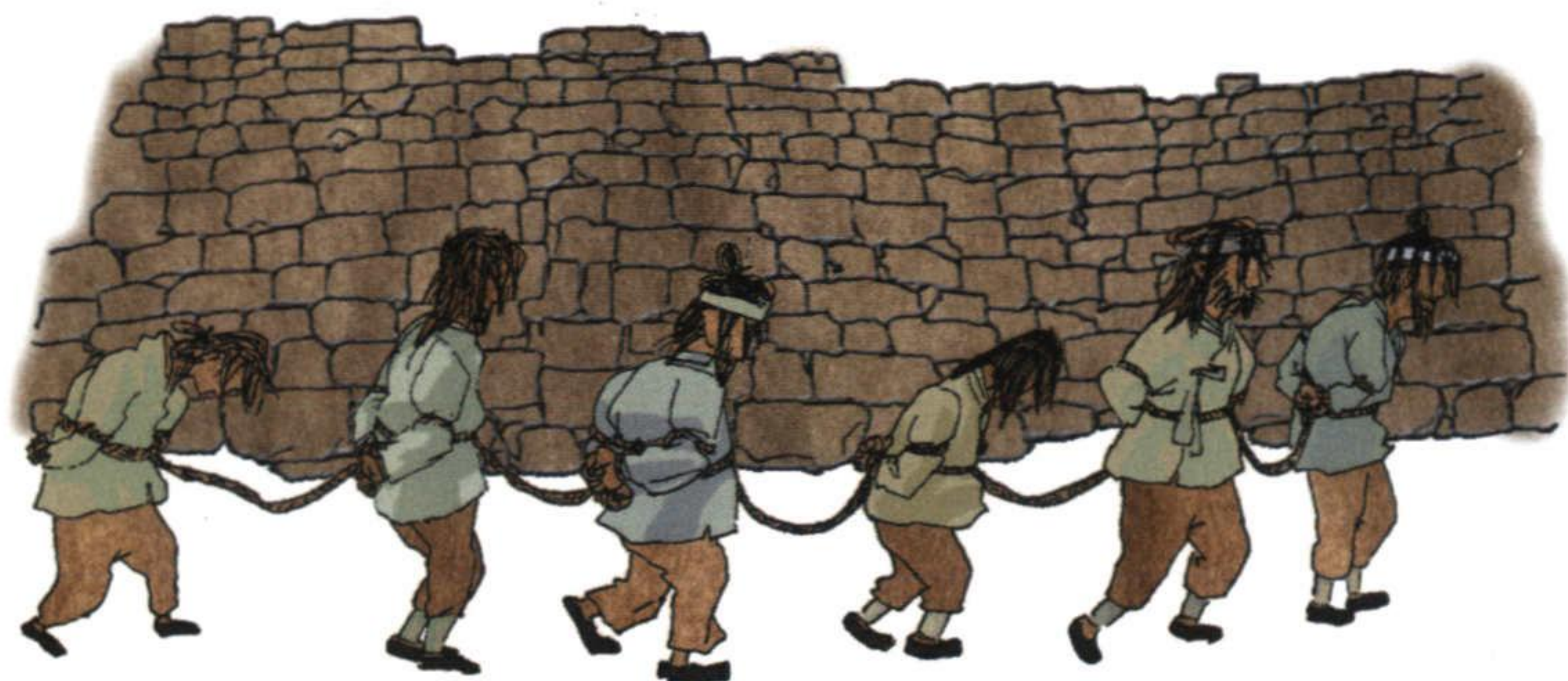
당시 홍주성 전투에서 의병의 참상은 일본경찰의 보고에 ‘적이 혼비백산하여 난사하는 한밤의 포성은 우리의 함성과 서로 어우러져 처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더욱이 일본군은 기마병을 시켜 의병을 추격, 사살케 하였으며, 체포 된 의병을 고문하고 심지어 작살하는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 라고 기록되었다.

일본군은 이후 홍성에 1년 이상 주둔하면서 부녀자를 농락하고 야만적인 행태를 자행하였다. 심지어는 갓 결혼한 신부를 잡으려고 대낮에 이집 저집을 뒤지는가 하면, 돌아다니는 닭을 총질로 잡아갔다. 또한 일본인들이 홍성에 정착하기 시작하여 홍주사람들은 일본인들의 행패에 시달렸다.

이후 일본은 의병의 재기 움직임에 불안을 느끼고 지역의 중요한 물들에 대한 감시와 학대를 강화하였다. 병으로 의병에 참여하지 못했던 김복한에 대해서도 민종식과 의병을 밀의하였다고 하여 구속하였고, 악형을 가했다. 김복한은 그해 11월 말 풀려났으나 1907년 10월 또 다시 체포되어 보령군의 관노청에 구금되었다. 죄명은 민심선동죄였다.



윤 4월 초 9일, 새벽에 홍주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는데
 사상자는 몇백명인지 알 수 없으며, 사방 수 십리 내는 인적이 끊겼다.
 잡힌 사람이 160여 명인데 모두 차례로 죽임을 당했다 한다.
 12일, 길옆에 서서 거처를 알지 못하다가 겨우 빈집 하나를 얻었다.
 촛불을 들고 방에 들어가니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창과 벽 사이 피자욱이 난자하니 이곳이 사람을 척살한 곳임을 알겠더라,
 홍주성 전투의 참상을 기록한 <윤치영일기>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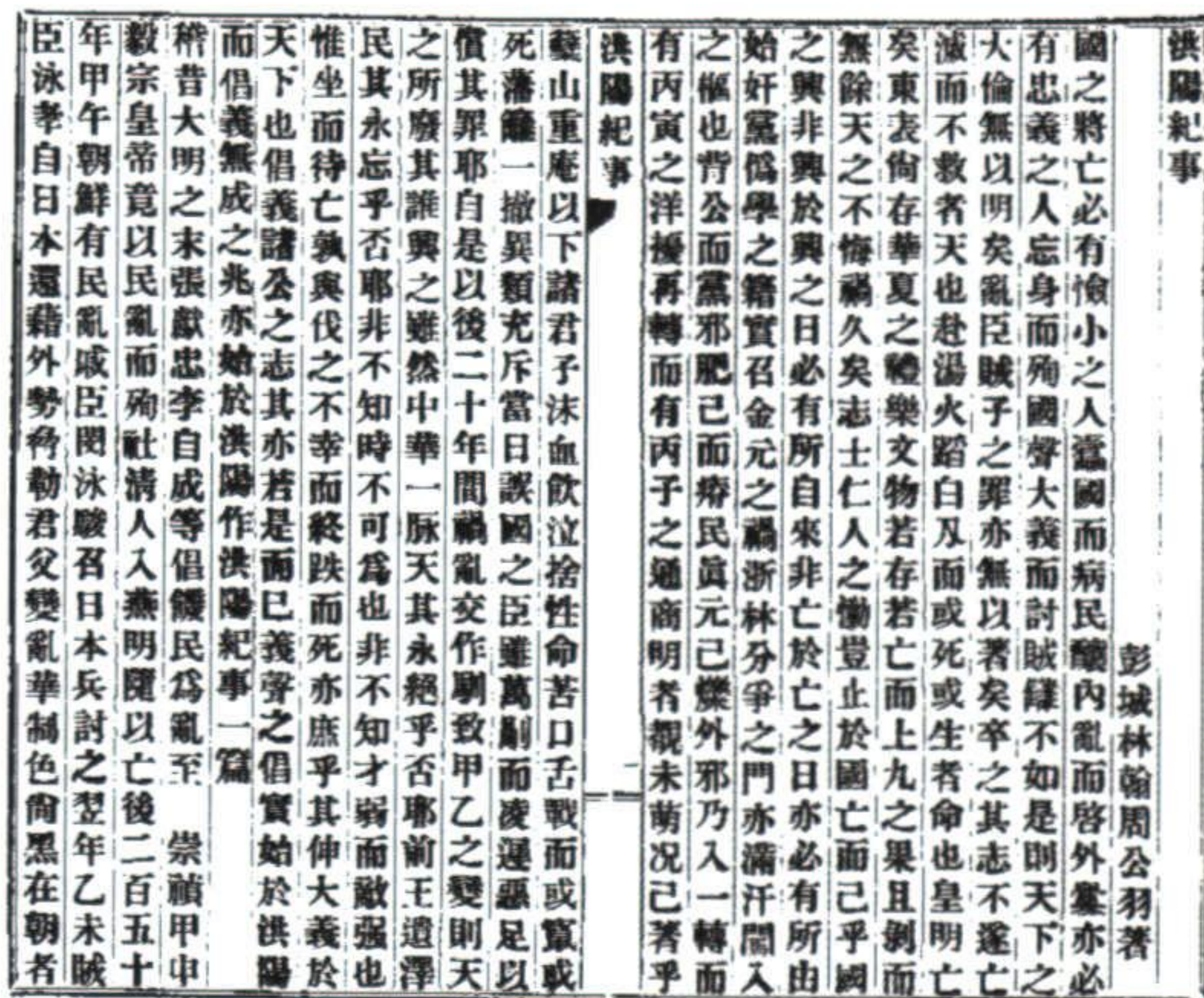


얼마 후 성안에서 흰옷에 상투를 풀고 두 손을 뒤로 결박하고,
허리를 굽은 동아줄로 묶인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끌려나오기 시작한다.
그러자 문밖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울음을 터트리고 그 행렬로 달려든다.
그러면 총을 메고 이쪽저쪽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달려드는 사람들을 발길로 차고 때려서 못 오게 한다.
행렬은 홍주교 쪽으로 가는데 성안에서는 여전히 나온다.
큰어머니와 종형수 그러고 어머니는 눈물을 씻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나는 그 이유를 몰랐다. 그 후에 안 일이다.
큰아버지와 사촌형님의 옥바라지를 위해 행렬을 따라 서울로 간 것이다.
손재학의 증언 〈어린 날의 홍주의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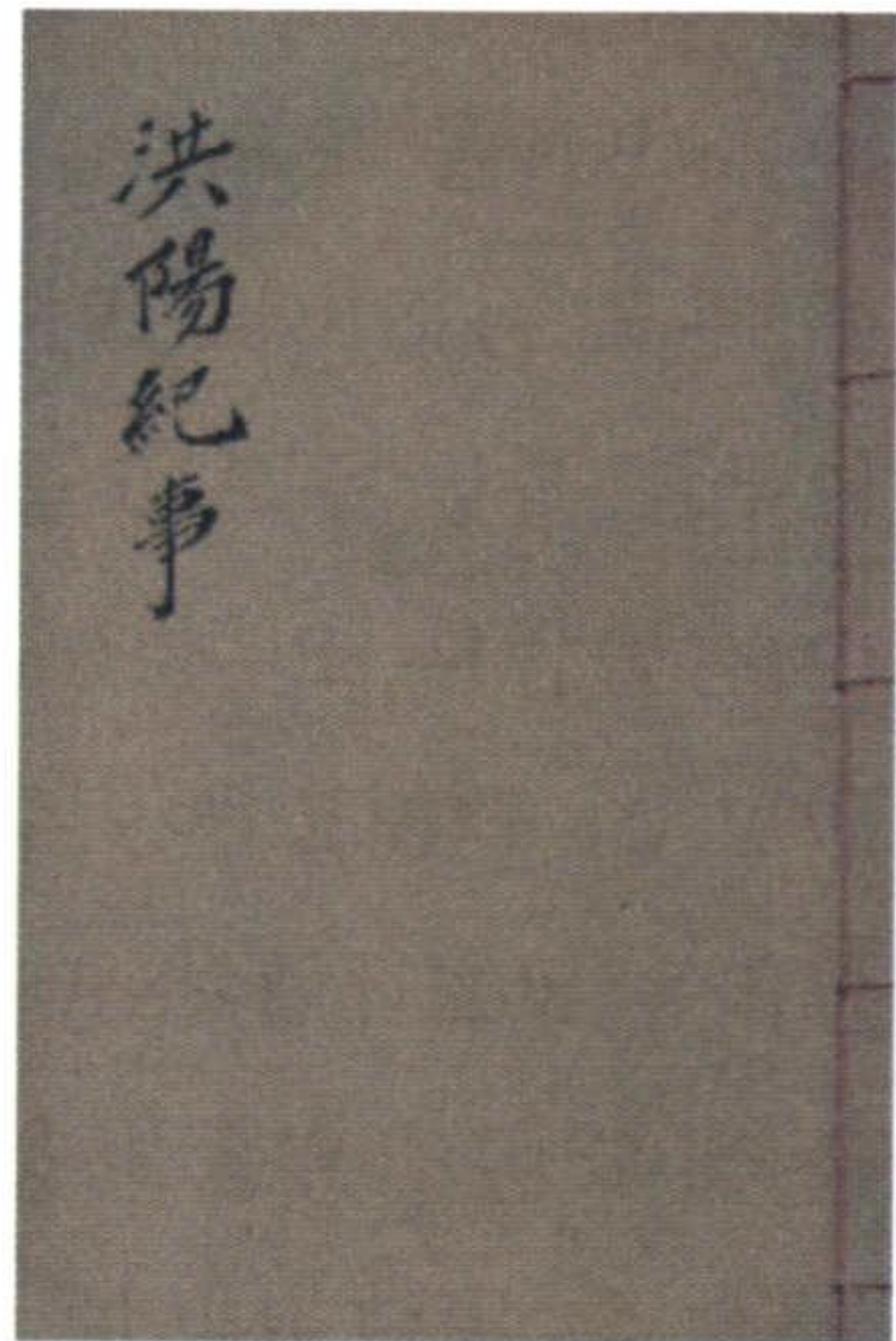
참상을 기록한 홍양기사(洪陽紀事)

임한주는 1895년과 1906년 2차에 걸친 홍주의병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기록은 임한주가 직접 겪은 항일의병의 사실을 글로 남긴 자료이며, 1915년 일본경찰의 감시를 피하여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오서산 내원사에 숨어서 썼다. 이 기사는 임한주의 유고 『파변집(芭邊集)』에 모두 수록되었는데, 훗날 김복한의 동생 김달한이 홍양기사 만을 단행본으로 추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이 글은 임한주가 직접 홍주의병에 참여하여 주변 인물들과 함께 보고 들은 이야기를 썼으므로, 당시 의병활동의 전개과정과 관련 인물들의 움직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격변의 시기 충청도 내포지역 지식인들의 사회인식과 저항정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료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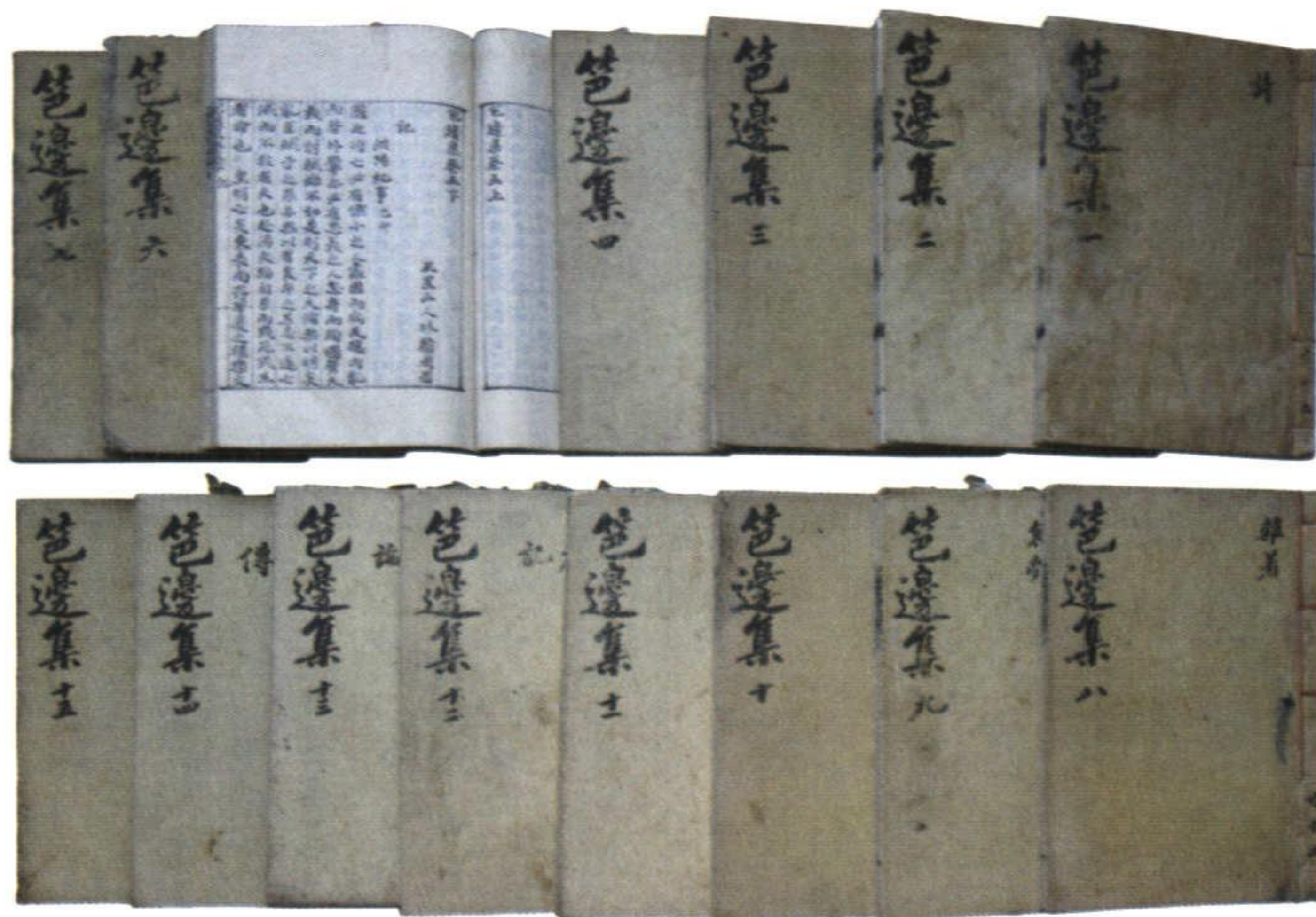


홍주의병의 과정을 기록한 홍양기사 (1915년, 임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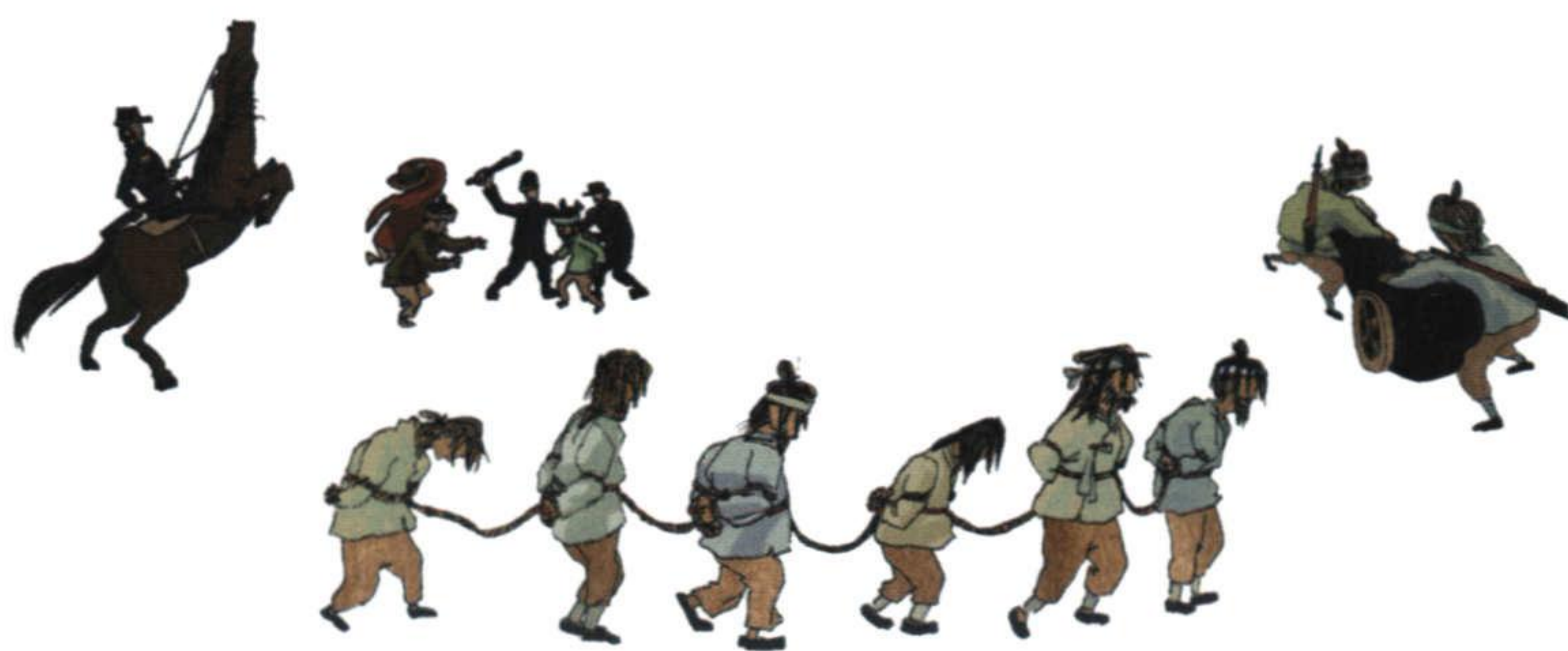


내용은 대체로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때로는 인물들이 스스로 나눈 말을 직접 인용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 관련인물들이 의병에 참여하게 된 속사정과 의병활동 이전의 삶, 학맥, 에피소드 등을 다루었다. 말미에는 김복한의 아들 김노동(金魯東)의 속기(續記)와 발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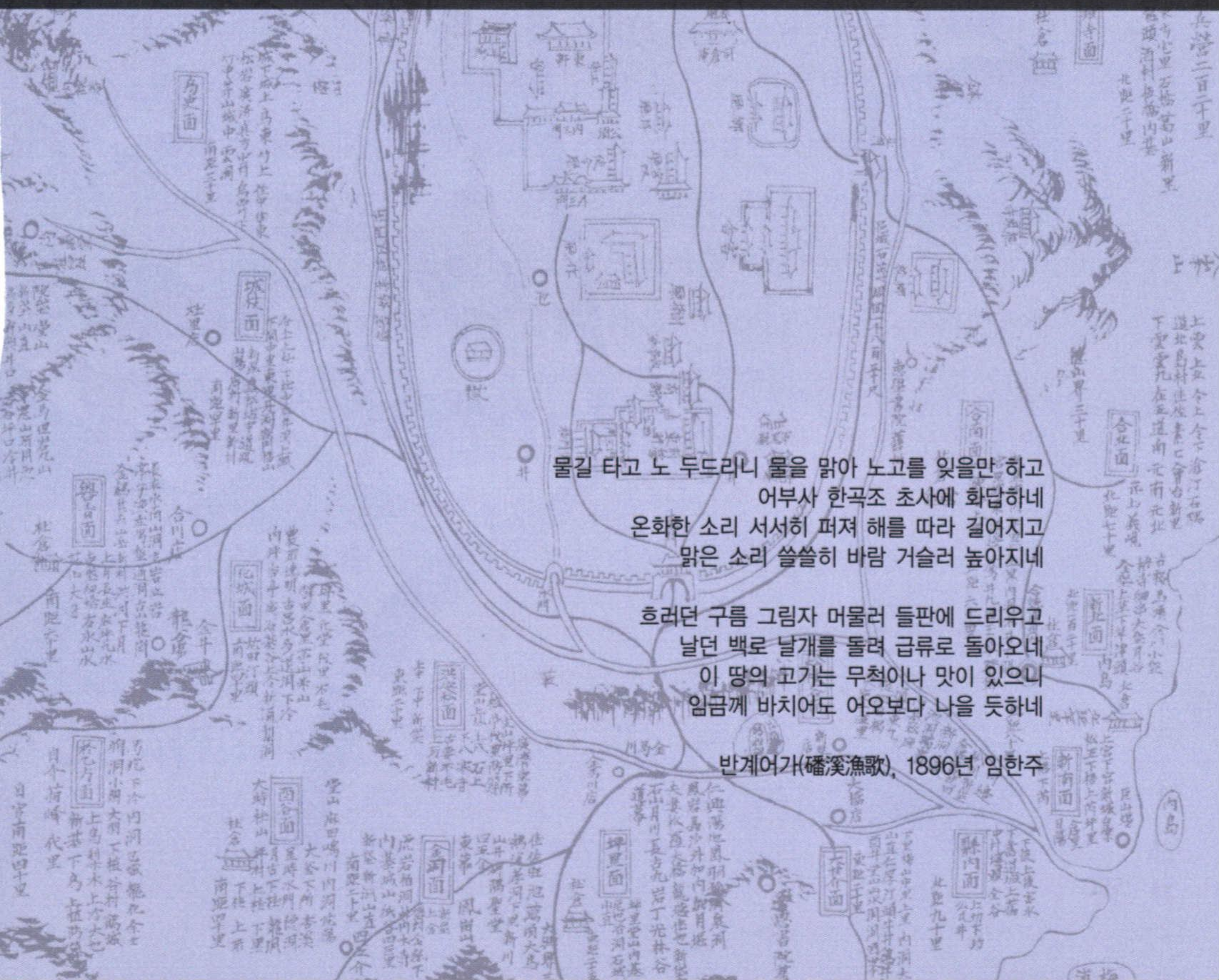
파변집은 임한주의 유고를 모아 엮은 책이다.
모두 15권 15책인데 각 권을 상, 하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성헌선생문집(惺軒先生文集)은 이 파변집을 발췌하여
5권으로 다시 엮은 것이다.
홍양기사는 이 파변집 제5권 하(下)의 첫 머리에 실려있다.





제 4 장

[만세시위와 파리장서의 작성]



물길 타고 노 두드리니 물을 맑아 노고를 잊을만 하고
어부사 한곡조 초사에 화답하네
온화한 소리 서서히 퍼져 해를 따라 길어지고
맑은 소리 쓸쓸히 바람 거슬러 높아지네

흐려던 구름 그림자 머물러 들판에 드리우고
날던 백로 날개를 돌려 급류로 돌아오네
이 땅의 고기는 무척이나 맛이 있으니
임금께 바치어도 어오보다 나을 듯하네

반계어가(磻溪漁歌), 1896년 임한주



김복한은 파리강화회의 개최소식을 듣고
일본의 만행을 알릴 기회라 생각했다.
곧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뜻을 모았는데,
당시 파리에 보낼 글은 임한주가 초안을 잡았다.

파리장서의 초안을 작성한 임한주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 중심의 동맹국 측 패배로 종전되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승전국측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회복해야하는 책무를 갖게 되었다. 각국 대표들은 파리에 모여 평화회의를 장기간 열었고,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미국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가 발표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이후 민족자결주의는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식민지 상태의 약소 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이제 수많은 민족들이 각기 스스로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는데, 이듬해 1919년 3월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인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더욱이 같은 해 1월, 의혹에 쌓인 고종의 갑작스런 죽음은 온 국민의 분노를 터트리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홍성의 김복한도 프랑스 파리에서 승전국들의 강회회의가 있음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는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일을 계획하였는데, 그는 곧바로 임한주를 찾아가 이 일을 함께 상의하고 장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당시 임한주는 홍주의병의 실패 이후 고향 물안이에서 덕명의숙을 세우고 신학문과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다. 또한 덕명의숙의 청장년들과 만세운동에도 참여 하느라 분주한 때였다.



파리에 보낼 독립청원서의 운반은
임한주의 조카 임경호가 맡았다.
삼엄한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임경호는 문서를 담뱃대에 말아 숨겼다.

당시 김복한이 임한주를 만난 것이 음력 2월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장서운동은 3·1운동 중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임한주는 이 일을 추진하는 핵심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독립청원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운반책은 조카 임경호(林敬鎬)가 맡았다. 당시 임경호는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고자 문서를 긴 담뱃대에 말아 숨겼다.

한편 임경호는 장서를 운반하는 도중 영남유림 김창숙(金昌淑)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우연히 서로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조선후기 우리나라 사상계를 이끌어 간 양대 산맥의 새로운 만남이었다. 그들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하늘이 도운 기이한 인연이라 여기고 기뻐하였다고 한다.

이 일을 계기로 힘을 합친 호서와 영남의 유림들은 서로 양측의 문안을 검토하였는데, 임경호는 김창숙과 함께 영남 유림의 대표 곽종석(郭鍾錫)에게 글을 보였다. 실상 두 글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다만 영남본이 보다 간명하여 최종적으로 채택되었고 문서의 서명자는 지역구별 없이 혼합하여 기록하였는데, 당시 모두 137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문서의 서명 순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러나 이 일을 두고 김복한은 태연하게 ‘모든 것은 우리의 성의에 있는 것이지, 어찌 서명의 선후를 다투겠는가. 비록 내 가장 말석에 참여한다 해도 달게 받겠다.’고 하였다. 항일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수 백년을 이어 온 영남과 호서유림 간의 학파와 당색의 벽이 허물어졌다.

평어상속수유하는 본학교로말 자를이연다음과갓다
 하연세제각국에 원부속십이커
 이오 그중이만명이상수유하는
 학교가다섯곳이며 대하이여일
 만키는연시몬이만은미국(米國)
 ▲米國二八 ▲露國四 ▲英屬四
 ▲伊太利四 ▲佛國一 ▲英屬七
 ▲埃及一 ▲比利時一 ▲波蘭一
 日本一 ▲其他一〇 ▲合六二

道民을欺瞞弄絡한

충남도당국을처치하라
 홍성고보문제민중대회

홍성고보(洪城高報)문예대하한 오직한가지 무엇이입다"는배우
 민중대연회(民衆大演說會)는 당으로 뜻집중계회사를간단히
 예당과가치 재직일 오후일공시 마치고 띄웁니다(李得季)씨의이
 부어 종로중앙(中央)학교 청년회관 문어가이러나겨원사실의대연
 (鍾路中央青年會館)에열리었는
 대연회는 당각원에 임의상하청
 예빈를업시들이찾고행리듯기를
 바란다는소리가뒤를이어이대남
 예상내는연회를시작하기전보러
 임의후분전 지분이거특히들어
 찾고 종로의입골에는 본지가등
 수하였다 당각에이로대 연장중
 (林敬鎭)씨의
 개회선언 을비롯하여 리
 종현(李鍾顯)씨의 "오리에게
 하고일본사장은일본사장자리에



◇홍성고보문제민중연설대회

||이심심한방청년회관에서||

최장도訓淵들은 A C 최안기금그살

홍성고보 민중대회 개회연사(동아일보, 1923년 03월 29일자)
 임경호는 평소 달변가이자 웅변가로 정평이 나 있었다.

전문을 암기하여 운송 된 파리장서

이제 비로소 2천 674자에 달하는 장문의 한국독립청원서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 장서를 서울을 거쳐 다시 상해임시정부로 보내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당시 운송책임을 맡은 임경호와 김창숙은 일본의 감시를 피하고자 이를 완전히 외워 버렸다. 그리고는 서울에서 두 사람이 각자 암기한 문안을 적었는데, 서로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없어 동료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에서 재작성 된 문서는 다시 짚신으로 엮어 성공적으로 상해임시정부에 운송되었다. 임시정부에서는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원본과 같이 3천부를 인쇄하였고, 파리강화회의는 물론 중국과 전국 각지에 배포할 수 있었다. 이는 유교적 무저항주의와 비타협주의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서운동은 일본경찰에 탐지되어 김복한 등 서명자들이 하나 둘 체포되었다. 김복한은 8월 공주감옥에 구속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함께 참여한 안병찬과 임한주는 6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파리장서운동의 서명자 137명 중 호서(湖西)의 인물들은 모두 17명이다.(김복한, 안병찬, 김덕진, 임한주, 최중식, 전양진, 이길성, 김상무, 김봉제, 유호근, 백관형, 유준근, 김병식, 신직선, 김지정, 이내수, 김학진) 이들은 대체로 남당 한원진(韓元震)과 화서 이항로(李恒老) 계열의 유림들이었지만, 안병찬 등 윤증계통의 소론계 인물도 있었다. 비교적 다양한 학문이 교류하였던 홍성 일대 내포지역에서, 항일의병운동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 하나로 뜻을

모은 이들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던 것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당시 임한주가 초안을 작성했다는 파리장서 호서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하나는 김복한의 아들 김노동(金魯東)이 보관하다 분실하였고, 나머지는 제자 전용욱(田溶馥)이 해방 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소각하였다고 한다.

이로서 일제의 식민통치는 10년 만에 국제적으로 큰 파국을 맞았다. 당시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최선의 방책은 식민지를 포기하고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오히려 신조선주의니 문화정치니 하는 명분을 내걸고 통치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유교부식회의 활동

2차에 걸친 의병의 봉기와 파리로 보낸 독립청원서의 결의, 그리고 만세시위까지 홍성의 지식인들은 독립을 위해 잠시도 쉬지 않았다. 이후에는 장기적인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였는데, 이는 유교진흥운동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 같은 운동은 김복한이 세상을 떠나고 3년 후인 1927년 유교부식회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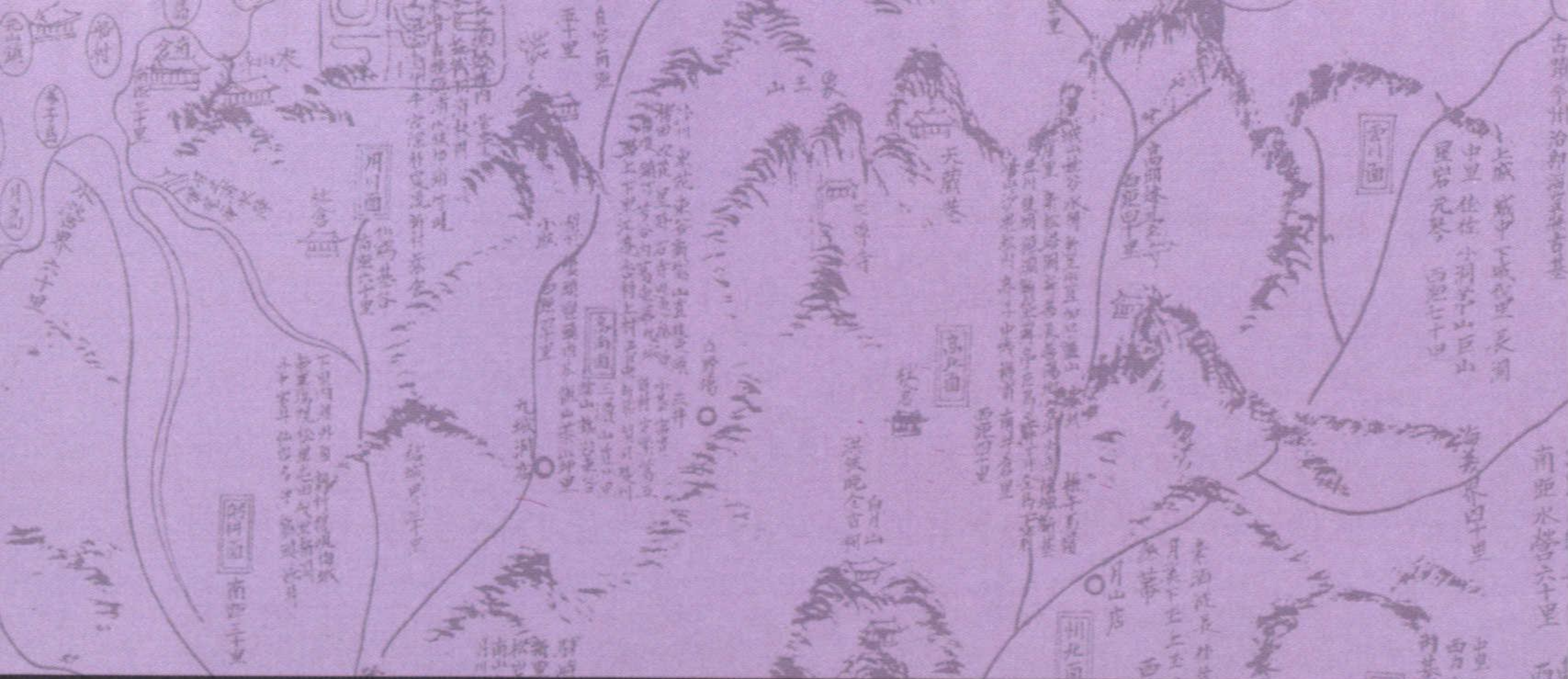
이들의 목표는 이제 유교적 전통을 진흥시키는 데 있었다. ‘공존(共存)’과 ‘공영(共榮)’을 큰 목표로, 여러 지역에 별도의 지회를 두어 꾸준히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다.

1927년 처음으로 홍주향교 명륜당에서 개최한 유교부식회의 강연회는 400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이듬해부터는 홍성지역의 순회강연을 개최하였으며, 연사는 김복한의 아들 김은동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이었다. 1928년 4월 25일에는 지금의 화암리에 성동(聖東)지부가 설치되고 임한주가 지부장을 맡았다.

하지만 유교부식회의 활동은 역시 일본경찰들의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강연회는 금지되었고, 주요 인물들은 언제나 감시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기관지 『인도(人道)』를 창간하였으며, 훗날 신간회 등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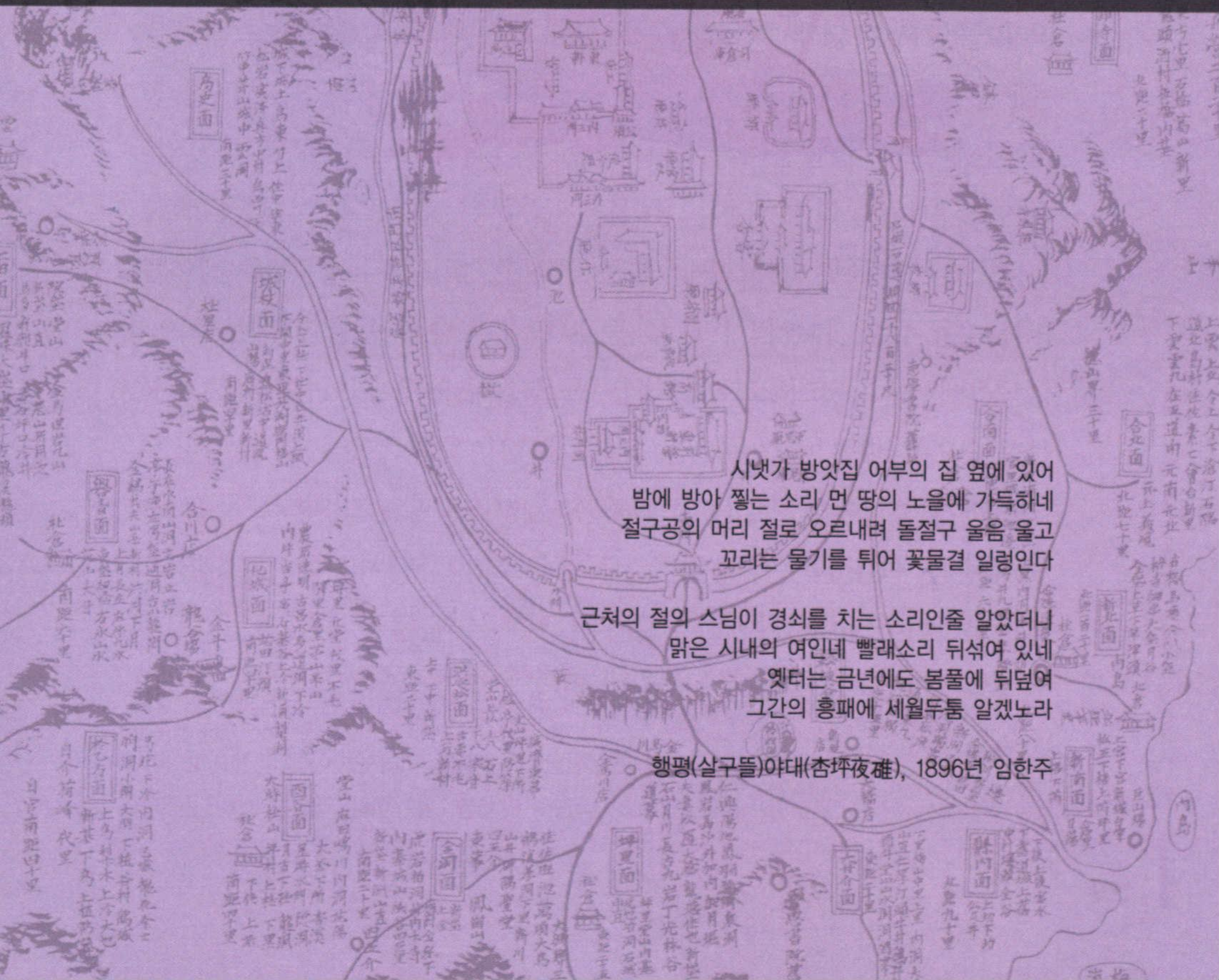


홍성의 주요 지식인들은
항상 감시와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유교부식회의 활동도 강제로 강연회가 취소되는 등
갖은 고초를 겪었다.



제 5 장

[물안이의 애국정신]



시냇가 방앗집 어부의 집 옆에 있어
밤에 방아 찢는 소리 먼 땅의 노을에 가득하네
절구공의 머리 절로 오르내려 돌절구 울음 울고
꼬리는 물기를 튀어 꽃물결 일렁인다

근처의 절의 스님이 경쇠를 치는 소리인줄 알았더니
맑은 시내의 여인네 빨래소리 뒤섞여 있네
옛터는 금년에도 봄풀에 뒤덮여
그간의 흥패에 세월두툼 알겠노라

행평(살구들)야대(杏坪夜碓), 1896년 임한주



만주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하던 임궁호가
 딸의 혼인식에 참석하고자 삼엄한 감시를 피해 물안이를 찾았다.
 정면 왼편에 승복을 입고 가장한 사람이 임궁호이다.
 오른편 술을 따르는 이가 임풍호인데, 만주로 독립운동자금을 전송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가장 오른쪽의 어린아이가 이현재 전 총리이다.

애국애족의(愛國愛族)의 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물안이는 ‘애국애족(愛國愛族)의 마을’이다. 물안이는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 된 1895년부터 굴욕적인 을사늑약(乙巳條約)이 있던 1905년까지, 그리고 1919년 3·1만세운동에서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애국지사를 배출했다. 특히 물안이의 애국지사들은 국내에서는 물론 상해임시정부, 간도 신흥무관학교 등 해외의 독립운동에서도 목숨을 걸고 활약한 인물들이 많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한주 선생을 비롯한 물안이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구국정신을 기려 공훈(功勳)하였다. 다음 13명의 인물들은 한 마을에서 태어나 살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한 시대의 어른들이다.

임승주, 임한주, 임경호, 임금호(독립훈장 애국장)

임상덕(대한민국 건국포상)

임준호, 임한영, 임광호, 김용옥, 박기, 김갑손, 박태선, 윤철선(대통령 포상)

이 외에도 물안이에는 3·1만세운동 당시 목숨을 걸고 앞장서 투쟁하다 헌병대에 붙들려 태형을 당한, 김만식·안두중·윤상진·하래선 등과 같은 독립유공 애국지사들도 있다. 충청도의 한 작은 산골마을에서 이처럼 많은 애국지사들을 배출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물안이 마을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19년 4월 5일 화성장터에서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일행들도 덩달아 합세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 헌병에게 검거되어 태형(笞刑)을 당했다.

화성만세운동

화성만세운동은 1919년 4월 5일, 면소재지인 산정리 화성장터에서 수백 명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항일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만세를 제지하는 일본 헌병에게 거세게 항거했고, 4월 7일에는 면소재지 북쪽 맞은편 골짜기인 농암리에서 80명 정도의 주민들이 함께 또 다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어 8일에는 마을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하객들까지 합세하여 대대적인 만세를 외쳤다. 이 때 결혼식에서 만세운동 동참을 권유하던 강학남은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성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매봉과 왕정봉, 지력재에서 횃불시위를 벌였다. 이에 놀란 일본 헌병은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으며, 검거되어 형을 받은 주민이 화성면에서만 39명(태형 90도 26명, 70도 2명, 60도 2명, 50도 1명, 40도 8명, 징역 6월 1명)에 이르고, 이 중 물안이 사람이 8명이었다. 이 가운데 임상덕은 태형 90도를 맞고 후유증으로 같은 해 9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태형은 서른 대 만 맞아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지독한 형벌이었다. 임상덕은 매 맺은 자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구더기가 슬고 썩어 들어가 목숨을 놓고 만 것이다.

당시 목숨을 내걸고 앞장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 형을 받은 물안이 사람들 중에는 후손이 없어 숭고한 희생과 정신이 공훈 되지 못한 인물도 4명이나 있다. 이들의 충절과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임상덕 태형 90도 건국포장
 임한영 태형 90도 대통령 표창
 임준호 태형 90도 대통령 표창
 김용옥 태형 90도 대통령 표창 김
 김만식 태형 90도 미포상
 안두중 태형 90도 미포상
 윤상진 태형 70도 미포상
 하래선 태형 40도 미포상

홍성칠의사, 임승주

임승주(林承周, 1867-1937)는 임한주의 형이자 임경호(林敬鎬)와 임성호(林誠鎬)의 아버지이다. 그는 1895년 12월 3일 관하 17개 군에 통문(通文)을 보내 의병을 소집하는 중책을 맡았다. 그러나 이날의 의병이 실패로 끝나자 검거되어 옥에 갇혔다. 함께 옥에 갇혀 있던 안병찬(安炳瓚)은 칼로 목을 찢러 순절을 기도하고 쓰러졌으나, 그가 극진히 간호하였다.

당시 임승주가 안병찬의 입에 미음을 넣어 먹이려 하자, 실의에 빠진 안병찬이 손을 저으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임승주는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을 바에야 며칠이라도 더 살아 아버님을 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며 달래었고, 안병찬이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미음을 받아먹고 몸을 회복했다.

고종황제는 임승주를 비롯해 7인에게 ‘홍주칠의사(洪州七義士)’라고 칙령을 내렸다. 이후 임승주는 2차 홍주의병에도 참여하여 항일정신을 불태웠으나, 끝내 조국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1937년 2월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임승주의 정신은 아들 대에도 이어졌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파리장서의 운반책, 임경호

임경호(林敬鎬, 1888-1945)는 임승주의 장남으로 호는 성백(聲百)이다. 물안이에서 태어나 김복한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대한민국 초대부통령 이시형의 망명을 수행하였으며 간도의 신흥무관

학교, 만주의 경학사(耕學社), 무정부주의연맹 등에서 활약하였다. 특히 1919년 작은아버지 임한주가 작성한 파리장서를 담뱃대에 말아 넣고 숨겨 전달한 핵심 운반책이었다. 또한 파리로 향하는 특사로도 임명되었는데, 운송 중에 발각될까 염려되어 문서의 전문을 완전히 외워버렸다. 이때 함께 운반책임을 맡은 영남유림 김창숙과 별도로 문안을 암기하였는데, 서울에서 다시 모여 외운 내용을 각자 적어 내자 서로 한 글자도 틀림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다. 문서는 무려 2천 674자에 달하는 장문이었다.

임경호는 1922년 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獎勵會)의 창립 시 전국 강연대표로 활약했을 정도로 언변과 리더십이 뛰어났다. 1925년에는 이상호와 시천교(侍天敎)를 내세워 2선에서 지하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그는 만공스님과 함께 주동자로 지목되어 일본경찰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지만, 그 와중에도 의열단(義烈團)에 가담했다. 의열단은 아나키스트 성격의 무장독립운동단체로 1919년 결성하여 상해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의열단은 모두 13명의 단원들이 해방 때까지 한사람의 배신자나 이탈자도 없이 투쟁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그는 국산품 애용을 통한 민족자립을 위해 1923년 결성된 조선물산장려회의 이사로 특히 선전직을 맡았다. 1932년부터는 이시형의 동생 이희영의 비밀결사단인 동아홍산사의 국내책으로 역할을 하던 중, 1942년 대의원총회장소에서 박종화, 심훈, 김창환 등 60여 명과 함께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이후 광복을 눈앞에 둔 1945년 2월 16일, 대구형무소에서 장렬히 옥사하였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배재학당의 학생들의 평양소풍 기념사진이다.
 홍성 물안이의 젊은 청년 4명(임성주, 임덕호, 임경호, 임금호)이
 모두 함께 했다.(1922년 5월)
 이들 중 일부는 이듬 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하였다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상해임시정부의 재정조달책, 임공호

임공호(林兢鎬, 1900-1964)는 물안이에서 태어나 종중서당인 덕명의숙에서 교육받았다. 이후 1920년 상경하여 배재학당에서 수학하였고, 1922년 일본으로 건너가 광도고보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듬해 1923년 9월 2일에 일어난 일본 관동대지진 이후, 조선인 학살만행을 목격하고 약소민족의 비애를 통감하였다.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상해로 망명하였는데, 이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찾아 내무총장 김구의 휘하에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상해에서 윤봉길을 김구에게 안내한 역할도 맡았다.

한편 임공호가 임시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할 당시, 같은 상해에 소재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치안문제로 임시정부에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다. 이때 의경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프 양국의 친선이 돈독해졌고, 이와 같은 우호관계는 임시정부가 중국 내 프랑스의 치외법권 지역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임공호는 임시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종제 임풍호의 도움을 받아 독립운동자금 900원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1927년 귀국 후에도 독립운동 자금 모금을 위해 동분서주 했는데, 결국 1930년 체포되어 부여경찰서에서 6개월간, 이듬해 다시 청양경찰서에서 검거되어 8개월간 고초를 겪었다. 그 뒤 요시찰 인물로 지목되어 감시와 협박, 수모를 받았으나 마침내 조국광복의 기쁨을 누렸다.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뜻을 모두 이루지는 못하였다.



1923년 일본 유학 중 임금호의 사진이다.(첫째 줄 오른쪽 끝)
임금호는 유학 중 관동대지진을 겪었는데,
이 때 무차별 학살당하는 조선인들을 보고 독립운동을 결심했다.

日本帝國通信省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of the Empire of Japan.

郵便局印
Stamp of Post Office.

外國郵便爲替金受領證書
RECEIPT for the amount of a FOREIGN MONEY ORDER.

券號碼
No. of Order: 11



下記金額郵便爲替ニ依リ送達ノ爲受領シタ
Received for transmission by Money Order the sum of

金四百圓

送替金額(外國貨幣ニテ) Amount of Order (in foreign money.)	送替換算額 Amount converted into Japanese money.	換算割合 Rate of conversion.	料 金 Fee.
	圓 400 -	壹圓 = 100	手数料 Fee
			郵便局加料 Advice of payment
			郵便送料 Express
			計 Total

氏名 林 龍 鎬
Name:
名宛人 居 所 上海法界辣斐德路佛雲里五十二號
Payee Address:

氏名 林 龍 鎬
Name:
差出人 居 所 朝鮮忠清南道陽郡化城面基德里
Remitter Address:

振出局所主務者
Postmaster.



外幣第二號

조선 충남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의 임풍호가
중국 상해 조계(프랑스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임금호에게
일금사백원을 이체한 영수증이다.
이 돈은 상해임시정부의 독립운동자금으로 쓰였다.



高警第...
大正十四年二月十二日

朝鮮總督府警務局長

在上海畿湖派^一鮮人ノ組織セル

韓血團ニ関スル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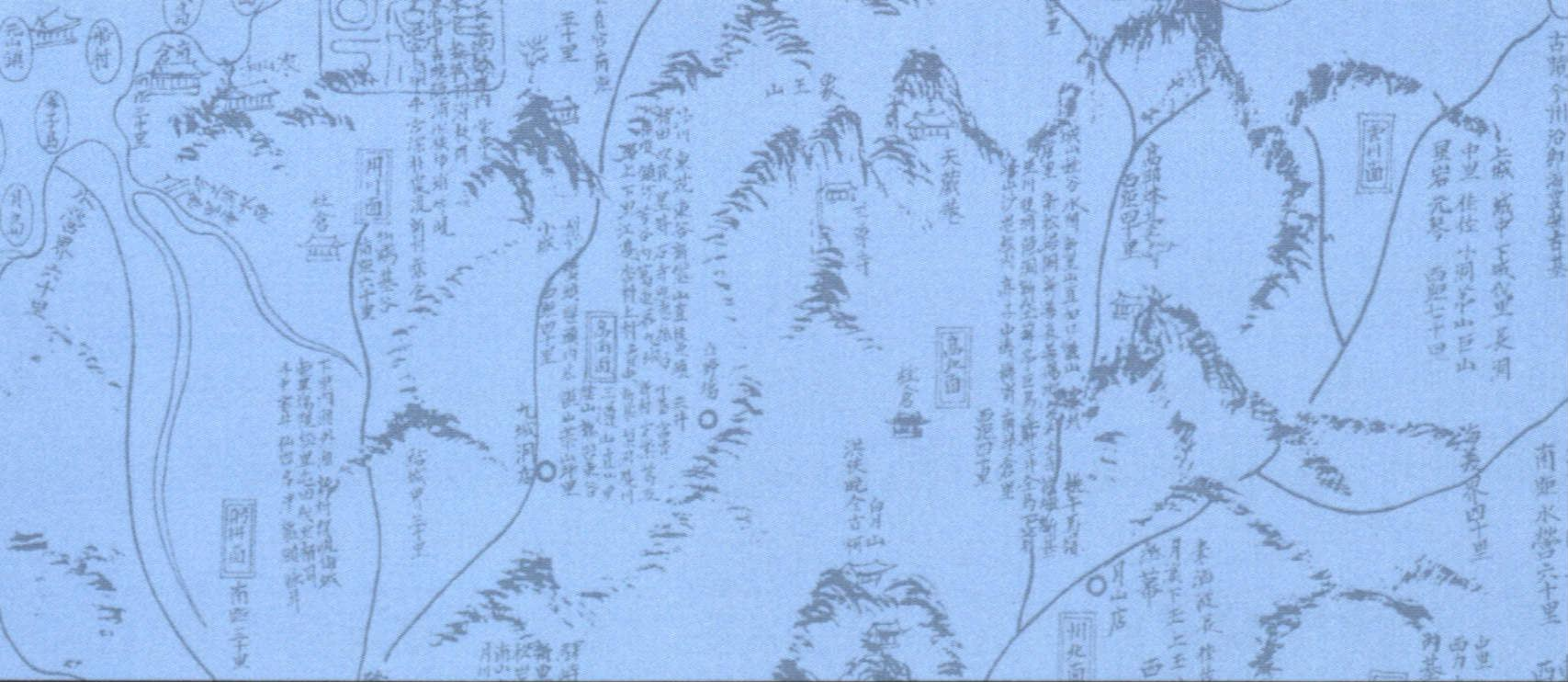
客臘李東寧^一内閣ノ倒壊後畿湖派ニ属スルハ朝鮮人等、暗々裡ニ自派ノ復興ヲ策シ現在ノ朴殷植^一ノ閣ニ對抗セシトスルノ風アリシカ同派ノ有力者金九、尹琦、安趙琬九、鄭泰源、趙完、金宇鎮等ハ本年一月初旬以來自派擁護ノ目的ヲ以テ左記約章ノ下ニ韓血團^一ヲ組織シ秘密團體ヲ組織シ金武東^一（忠南^一出身）金魯源^一（忠南^一出身）車榮鎬^一（忠南^一出身）朴正哲^一（平壤^一出身）金毅漢^一（平壤^一出身）等ヲ組織シテ活動スル事ナリ

（七）金嘉鎮^一任仁淳、金南植、張儀柱^一（平壤^一）李花天^一（平壤^一）崔景輝^一（義州^一出身）林兢鎬等ヲ活動ノ中心人物トシテ入團セシメ犧牲的運動ヲ主眼トシ暗殺ヲ目的トシ先ツ上海ニ於ケル現在ノ時局ヲ廓清シ官憲ノ安寧ヲ調査シテ之ヲ處置シタル上更ニ鮮内ニ於ケル親日的高官ヲ暗殺スヘク方針ヲ定メ之ヲ實行ニ依リ大ニ自派ノ氣勢ヲ揚クヘク計劃シ居タル處金武東以下ノ活動部員ハ幹部ヨリ資金調達ノ手段トシテ強盜行為ヲ最ニスヘク勸誘セラレタルニ對シ不滿ヲ懷キ入團後間ニナク連袂脱退シタル爲同團ノ前途、逆暗スヘカラセルモノアリト云フ

九 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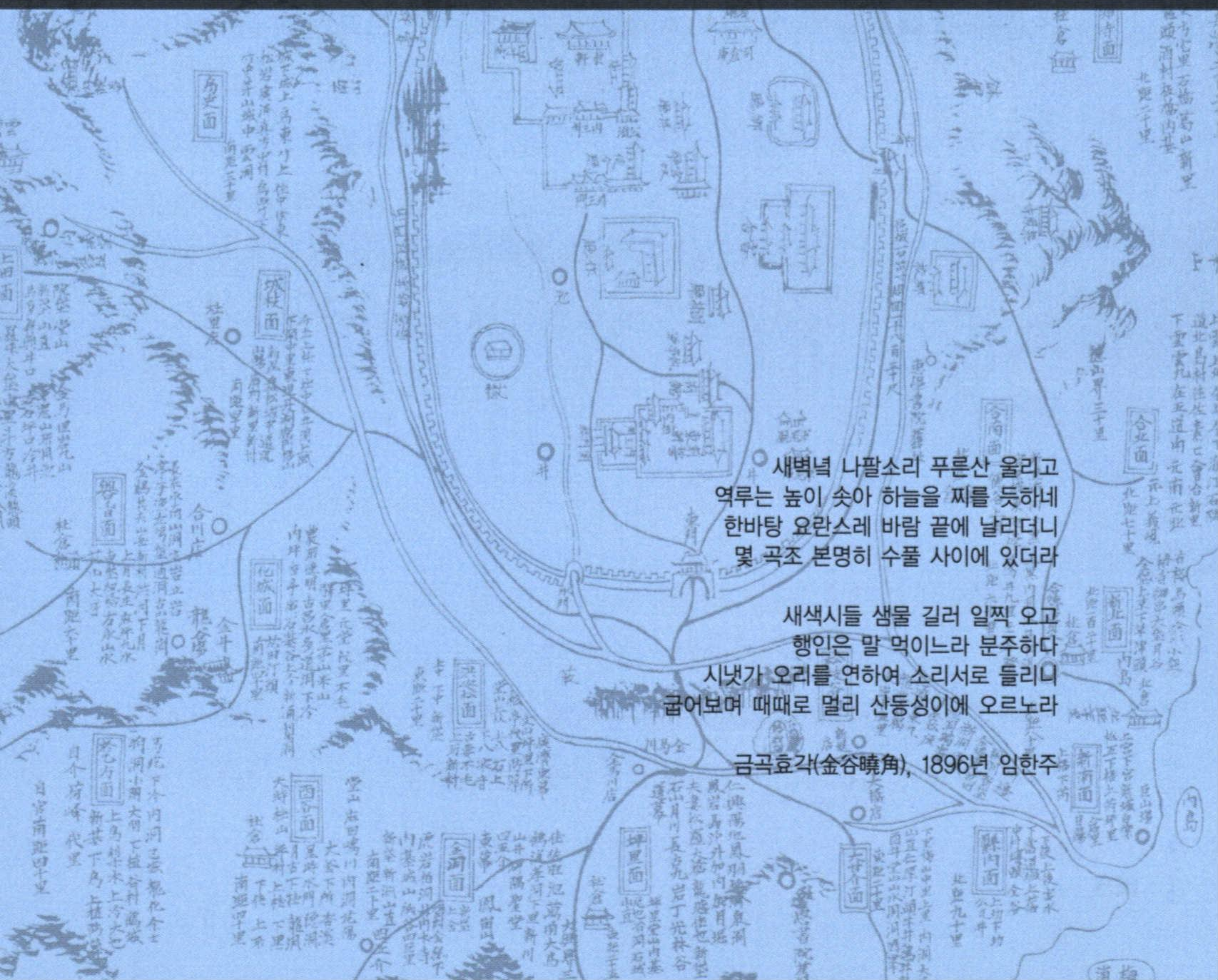
一 秘密結社ナルヲ以テ團内ノ行動ヲ團員以外ニ口外ス

상해에 있는 '기호파(畿湖派) 불령선인(不逞鮮人)' 이 조직한 한혈단(韓血團)에 관한 문서(1925년 2월 12일)이다.
'불령선인'이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자기네 말을 따르지 않는 한국사람을 낮춰 부르던 말이다.
문서에 임궁호는 불령선인의 중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제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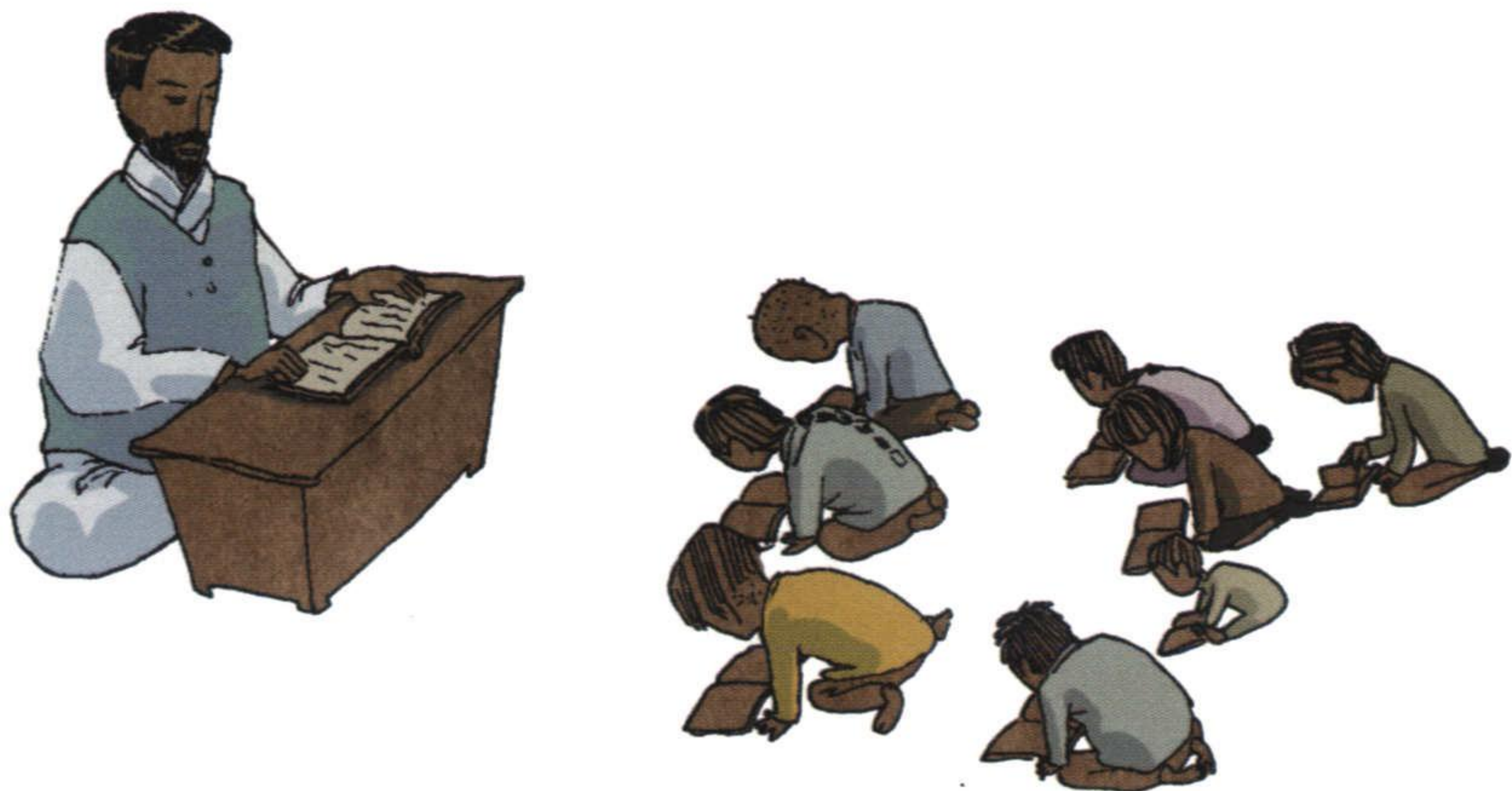
[산천재의 교육정신과 덕명의숙]



새벽녘 나팔소리 푸른산 울리고
역루는 높이 솟아 하늘을 찌를 듯하네
한바탕 요란스레 바람 끝에 날리더니
몇 곡조 분명히 수풀 사이에 있더라

새색시들 샘물 길러 일찍 오고
행인은 말 먹이느라 분주하다
시냇가 오리를 연하여 소리서로 들리니
굽어보며 때때로 멀리 산등성이에 오르노라

금곡효각(金谷曉角), 1896년 임한주



두 번의 홍주의병과 파리장서사건에서 고초를 겪은 임한주는 이제 물안이에서 새로운 젊은이들을 교육하는데 몰두했다. 그리고 임한주의 덕명의숙에서 학업을 닦은 학생들이 다시 새로운 독립운동가로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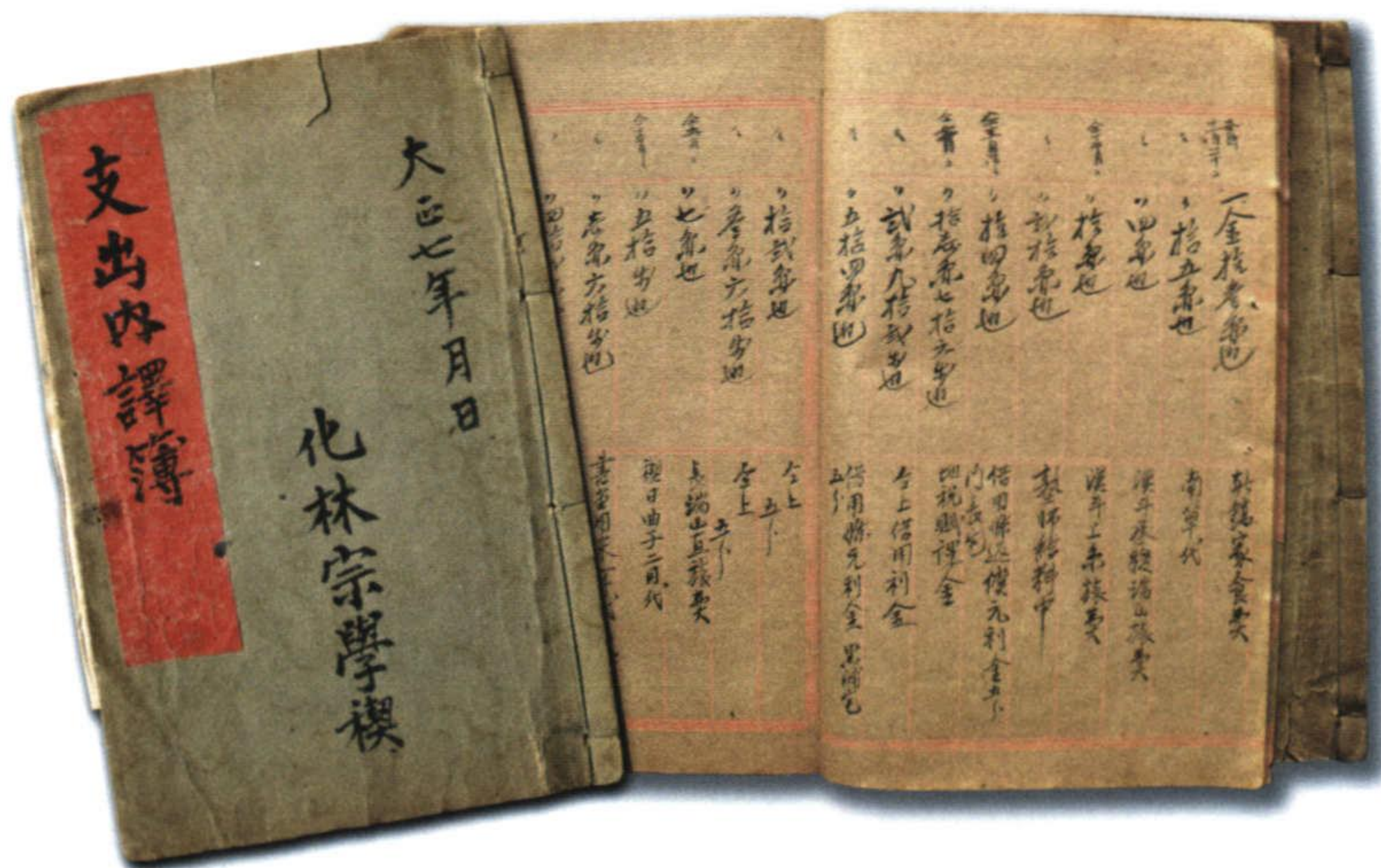
문중의 재실을 서당으로

산천재는 화성 평택임씨 문중에서 회의장소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으로 활용하고자 100여 년 전에 지은 건물이다. 현재 행정구역상 화암리에 속하며, 폐교 된 화암초등학교 인근이다. 당시 임한주가 남긴 상량문에서도,

‘온 종족이 회의할 장소를 이미 여러 대의 묘소가 있는 곳에 정했네.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함께 배우니 어찌 몇 개의 시령과 서실이 없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여 당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산천재의 위치는 수정리와 화암리, 기덕리가 모두 접해 있는 고개마루턱에 지어졌다. 임한주는 같은 글에서 산천재의 위치에 대해, ‘이 산천재는 난정(蘭汀)과 화창(花倉) 두 동리 가운데 있으면서, 조부 송파공(松坡公) 임식(林植)부터 참의공 임득인(林得仁), 그리고 손자 동암공(桐巖公) 임현에 이르는 삼대의 제사를 받든다. (세 마을 간의)길의 거리가 왕래하기 균등하여 종족이 회합하기에 쉽구나.’라고 하였다. 한편 산천재에서는 평택임씨의 후손 뿐 만 아니라 인근의 타성 아이들도 함께 강학을 실시 해왔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옛 재실을 본 따서 강의하는 공간을 열고, 새 규범을 만들어 학도들을 모집했다. 파피리 불고 죽마(竹馬) 타는 아이들을 모두 독서에 몰아넣었으니 7-9세의 아이들이 많고, 성씨가 다른 한마을의 자녀들도 또한 함께 공부하도록 하니 무려 수가 30여 명에 이르렀다.’



화림종학계 지출내역부(1918년 7월)

화성의 평택임씨 종중에서 후손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종계 운영문서이다. 정기적으로 덕명의숙 선생님의 급료가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어 집이 비좁게 되자 종종에서는 다시 돈과 재목을 모아 몇 간의 시렁을 더 만들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 당시의 고생에 대해 임한주는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이에 여러 집안사람들이 생각을 모으고 공인(功人)들이 힘을 다하여 묘전의 남은 곡식을 나누고 선산의 남은 재목을 모아 몇 간의 시렁을 더 만들었다. 마음속으로 삼켰다 뱉었다 하며 고민한 것이 이미 오래 되었고, 참으로 몇 십년동안 짓고자 하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집이 눈앞에 우뚝 솟아 새로우니 또한 2-3인이 함께 결단한 결과이다.

이제 산천재는 어느 덧 배움터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 집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북쪽으로 창을 내고 동쪽으로 난간을 내었다. 이는 바람을 불러오고 달빛을 들이는 장소로 부족함이 없었다. 아래로는 왕골자리, 위로 대자리는 곧 자고 일어날 만하고, 왼쪽에 그림 오른쪽은 책이 있다. 소나무와 오동나무를 쳐다보며 깃들여 사니 선조들을 받드는 효도를 생각할 수 있으며, 꽃과 나무를 심어놓고 즐기니 종족을 화목하게 하였다. 산천재의 상량식이 있던 날, 마을어른 임상희(林相熙)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내가 무덤들을 돌아보고 재실에 들어가 보니 한 집안의 젊은 신진들이 모두모여 있었다. 아침저녁으로 글을 외울 적에 그 좁은 곳은 좁게 앉아도 수용하지를 못하더니 다시 재실 앞 신도비 오른쪽에 한 글방을 지어 일 년 만에 일이 끝났다. 이를 추진한 일을 들어보니 온 종족이 힘을 합하였고 석주(錫周)와 호주(浩周)가 부지런히 움직여 여러가지 고생을 겪었다고 했다. 집이 낙성될 때 씨족들이 모이고 이웃마을에서도 두루 찾아오니 원근의 문인과 사백(詞伯)들이 칭송하지 않음이 없었다.

山泉齋



일제강점기 임한주를 중심으로 하는 평택임씨 종중에서는
산천재를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평택임씨 문중의 자녀들 외에도
타성의 아이들까지 모두 참여 할 수 있었다.
배움의 기회가 흔치 않았던 당시
원근의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이 찾아온 산천재는 늘 활기가 넘쳤다.

독립운동의 거점이 된 덕명의숙

이처럼 마을 원근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도맡던 산천재는 서당형식의 교육 형태를 이어오다가 1936년 부설화암간이학교를 설립한 후 7년간 운영하였고, 1943년 화성초등학교 화암분교로 승격되었다. 해방 후 1946년에 새로운 학교건물이 신축되기 전에는 덕명의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글방에서는 사서삼경은 물론 역사와 신학문도 함께 가르쳤다. 홍주의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애국지사들이 교육을 펼쳐 많은 학생들이 의식을 깨우쳤다. 특히 학원의 주요인물들을 중심으로 1919년의 만세운동을 비롯한 항일운동에 적극 지원하고 참여하였으며, 학원에서 배출된 젊은이들은 배재학당과 일본 등지로 유학을 떠났다. 또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는가 하면, 국내 곳곳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덕명의숙은 곧 배움의 전당이었을 뿐 아니라 애국지사의 산실이였다.



덕명의숙에서는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애국지사들이
직접 교육을 담당했다.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으로
산천재는 훗날 애국지사의 산실이 되었다.

물안이 새마을학원

산천재와 덕명의숙의 교육정신은 1960년대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물안의 임동걸은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도 전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로 학교를 세웠다. 당시 야학을 운영하여 농촌계몽운동을 벌렸는데,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의 주거환경을 가꾸어 나갔다. 또 도로를 확장해 자동차와 수레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마을사람들은 1974년 처음 전기를 끌어왔고 1978년에는 전화기도 놓았다. 이어 1986년에는 기와로 된 마을회관을 건립했으며, 또 버스 승강장도 자체적으로 세웠다. 한편 1950년 대에는 회관 마당에 무대를 꾸며놓고 ‘아사달’ 연극공연을 하기도 했다. 1970년대 들어 연극 대신 윷놀이나 콩쿠르대회로 바뀌었다.

수정리의 새마을가꾸기사업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당시 최명현 재건국민운동 충남지부장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였다. 최지부장은 여러 차례 수정리를 방문해 새마을학원을 ‘재건학교’로 개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면서, 재건국민운동의 모델을 삼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마을사람 임동걸은 ‘쓰러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재건인데, 우리에게 무너진 문화도 없고 쓰러진 적도 없었다.’며 이름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새마을학원
재건생활학교 과정수료식기념(1962년)

농촌계몽에 앞장 선 고등학생 임동걸

임동걸은 공주 영명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농촌계몽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함석헌의 영향을 받아 ‘내가 사는 동네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수정리에서 계몽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항상 ‘우리 농촌을 지키는 자는 농민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무지한 농민, 궁핍한 농민, 부자유스런 농민에서 탈피해 새로운 지식 농사기술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한다’고 생각했다.

1961년부터 7년 동안 고등학생 임동걸은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마을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고모 댁인 정상우의 집 사랑방에서 15명 정도의 학생을 지도했다. 당시의 교육이라야 계몽잡지 등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정도였지만, 한글을 깨우치기도 어려웠던 시절, 학생들은 열의가 넘쳤다. 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야학교를 찾기도 했다.

야학교는 1961년 화암교회로 옮기면서 체계를 갖추었다. 이때부터는 경기공고를 졸업한 임한익이 교사로 참여했다. 임한익은 처음에는 한글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언어교육을 맡다가 나중에는 영어, 수학, 역사, 과학 등의 많은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당시 화암초등학교 교장이었던 한상호와 많은 교사들의 정열적인 활동이 크게 뒷받침 되었다. 비바람이 부는 여름날 밤이나 영하 15도를 넘는 겨울밤에도 휴강은 없었다. 여자아이들도 심리가 넘는 밤길을 걸어와 글을 배우고, 배움의 기쁨을 누렸다.



제1회 졸업기념사진(1966년 9월 14일 촬영)

새마을학원은 1960년 8월 21일 개원하여 9년 동안 운영되었다.
이 사진은 양재반 학생과 교사들이다.

산천재로 이전

그러던 중 하나 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자 같은 해 8월 21일 학교를 화암교회에서 평택임씨 ‘산천재’로 옮겼다. 산천재는 평택임씨 종중에서 회의와 교육을 위해 지은 강당으로, 그때 처음 ‘새마을학원’이란 간판을 내걸었다. 새마을학원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27명의 남녀 학생과 문맹자 13명 등 40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개원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임동걸은 이제 73세가 되었다. 그는 ‘무지와 빈곤, 불안, 부자유에 구속된 우리 농민들의 생활환경을 바꾸고 싶었다. 명랑하고 부유한 마을을 이룩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청년들의 사명이요 의무라 생각했다’고 하며 당시를 회상한다. 이후 새마을학원은 가난한 사람일수로 꼭 배워야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아래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과 화암국민학교 교사들을 강사로 초빙했다.

당시 초대원장은 한상호 화암국민학교 교장이 맡았고, 임승춘, 백광현 등이 교사로 참여했다. 과목도 도덕과 국어, 산수, 사생, 자연, 한문, 생리, 상업, 국사, 농업, 지리 등 다양하게 개설했다. 학생들도 초등반과 중등반 등 2개 반을 운영하다 양재반과 한복반 등도 개설했다. 학생들은 수정리와 화암리, 기덕리 등 화성뿐만 아니라 보령 청라면과 홍성 장곡면 등지에서도 찾아왔다. 거리가 먼 지역의 학생들은 등불을 들고 통학하기도 했는데, 1963년에는 문예지 ‘등불’을 창간하는 성과도 거뒀다.



새마을학원의 정기 문예지 '등불'

창간호는 1963년에 발간되었으며, 당시 졸업생은
초등반 수료자 12명, 중등반 졸업자 20명, 양재반 수료자 18명
모두 50명이다.

가난도 극복한 학업의지

그러나 새마을학원은 개원 당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다. 강사들은 시간적인 제한을 받았으며, 그나마 강사진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 수차례 담당과목을 변경하기도 했다. 4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로서 충분한 시설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도 강사들의 의지와 학생들의 열의를 꺾지는 못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새마을학원은 문맹퇴치에도 크게 기여했다. 결국 1963년에는 50여 명의 문맹자가 한글을 완전히 깨우쳤고, 150명이 학원에 병설된 재건 생활학교 과정을 수료했다. 또 60명이 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생활기술교육까지 받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게다가 수료를 마친 학생의 대부분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으로 진출하였다.

연세대학 의과대학의 의료봉사

임동걸은 교육 뿐 만 아니라 마을사람들의 건강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관심은 곧 행동으로 옮겼는데, 당시 친구가 다니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찾아갔다. 그리고 의대생과 기독교생회 학생들에게 농촌계몽운동과 독서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학교의 어려운 실정을 호소했다. 그는 ‘농촌이 발전하려면 마을사람들의 건강도 중요하고, 지식을 쌓기 위해 책도 필요하다’며 학생들에게 의료봉사활동을 요청했다.



청년 임동걸의 적극적인 노력은 결국 7년간 수백 권의 책을 기증 받고 무료의료봉사로 이어지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의대생들과 기독교학생회 회원들은 방학 때를 이용, 특별히 수정리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또 책과 옷, 이불 등을 보내 강당이 책으로 넘쳐났다. 의복과 이부자리 마저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시절, 서울 학생들이 보내 준 수백 벌의 옷과 이부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책들은 너무도 소중한 마을의 자산이 되었다.

복사꽃 피는 마을

이후 새마을학원은 농촌계몽과 새마을운동 부분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혔다. 이는 1968년 KBS라디오에서 수정리를 모델로 제작한 ‘복사꽃 피는 마을’ (작가 최풍)이라는 연속극이 전파를 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라디오 연속극은 밤 8시 20분마다 총 30회 분량이 전국적으로 방송되었다. 수정리가 라디오 연속극의 실제모델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다.

임한익은 ‘당시 우리의 생각이나 활동과는 조금 다르게 각색되어 이야기가 전개되기는 했지만, 새마을학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구호가 전국적인 새마을운동으로 전개됐다’ 고 한다.

복사꽃 피는 마을은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리에 방송된 프로그램이었다. 비록 제작은 무산됐지만 영화가 기획될 정도였다. 영화 ‘복사꽃 피는 마을’은 영화 ‘팔도강산’을 연출한 배석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최풍 작가가 대본을 맡았었다. 당시 대본에는 주인공 백광현을 비롯해 임동걸·임한익·팽성만 등 새마을학원 강사들의 실명도 등장한다. 주요 줄거리는 노름꾼이었던 팽성만이 마을을 이끄는 지도자로 개과천선한다는 내용이다.

새마을학원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마을사람들의 자랑이었다. 학원을 함께 다닌 여러 마을사람들의 화합도 돈독했다. 수정리에서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윷놀이 판이 벌어지면, 화암리와 기덕리에서 농악대를 앞세우고 함께 참여하였다. 온 마을주민이 하나가 되어 즐기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한 장면이다.



마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라디오를 듣는다.
당시 마을이야기를 다룬 '복사꽃 필 무렵'이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되어 전국적으로 전파를 탔다.

6	5
1. 부사. 이. 더. 많. 타이틀. 백 그것을 B.C로 다 해설책. 최문. 이. 지는. 사. 나. 고. 빛. 바람. 에. 을. 물. 가. 린.	정자나무 악. 악.을. 밖.의. 크.고. 음. 음.한. 古.水. 삼. 자. 기. 내. 려. 켜. 는. 비. 략. 을. 맞. 고. 紋. 樣. 두. 개. 가. 불. 이. 불. (의. 나. 가. 떨어. 지. 다.) 그러나. 큰. 가. 지. 하. 나. 가. 남. 부.의. 주.권. 다. 본. 가. 지.

KBS 라디오 드라마 복사꽃 피는 마을은
영화로 다시 제작되기도 하였다.
위의 사진은 당시 쓰여진 대본집의 일부로
영화는 팔도강산의 감독 배석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최풍 작가가 대본을 맡았다.



1871년 2월 11일 청양 물안이(수정리 567)에서 출생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의거를 결심

1896년 제1차 홍주의병 참여

고향의 경치를 읊은「산천재수곡팔경」을 지음

1903년 4월 7일 홍주의병 통문 작성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제2차 홍주의병 참여

1915년 내원사에서 홍양 기사를 기술

1919년 삼일운동이 발발하자 파리장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서명

5월 파리장서 사건으로 일제에 체포되어 공주감옥에 구금

7월 29일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름

1910년대 이후 덕명의숙을 세우고 지방교육에 헌신함

1915년 오서산 내원사에서 홍양 기사를 기술

1919년 삼일운동이 발발하자 파리장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서명

5월 파리장서 사건으로 일제에 체포되어 공주감옥에 구금

7월 29일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름

1954년 5월 19일 고향 물안이에서 세상을 떠남

1983년 대한민국 건국포장 추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1992년 공적비 건립

임한주 선생의 저서로는 홍양 기사를 비롯하여 파변집(15권), 시문잡저(8권), 우양만록(5권) 등 28여 권이 있다.

■ 참고문헌

『파변집』, 『홍양기사』, 『성헌선생문집』

『홍주의병실록』, 홍주의병유족회, 1986

김상기, 「김복한의 홍주의병과 파리장서 운동」,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이은숙, 「1905~10년 洪州 義兵運動의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김진호,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04

김상기, 「한말 일제하 홍성지역 유림의 형성과 항일민족운동」, 한국근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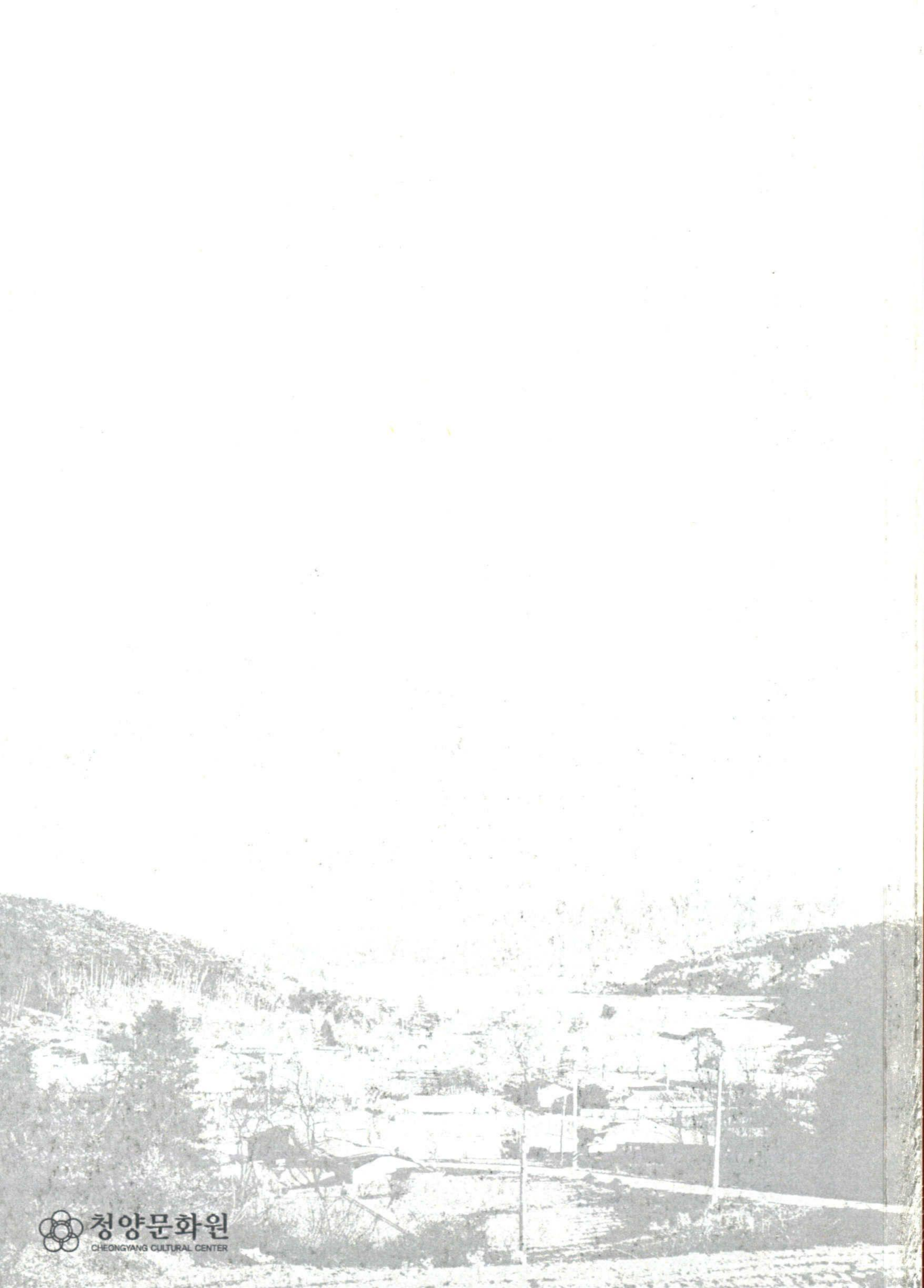
김상기, 「1906년 홍주의병의 홍주성 전투」, 한국근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06

서동일, 「1919년 보수유림의 복제논쟁과 파리장서운동」, 역사와 실학, 역사실학회, 2007



- 발 행 처 : 청양문화원(cheongyang.cult21.or.kr)
- 발 행 일 : 2012년 12월
- 자료제공 : 평택임씨 참의공파 종중
- 자료정리 : 정현정
- 편집디자인 : 박노필
- 삽 화 : 이미선
- 인 쇄 : 금오광고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글은 평택임씨 참의공파 종중에 있습니다.



청양문화원
CHEONGYANG CULTURAL CENTER